대전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실태조사

박 재 묵
김 도 균
민 병 기
임 현 정

2014. 11.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DAEJEON SOCIAL CAPITAL SUPPORT CENTER

책임연구원 박재묵(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도균(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민병기(충남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공동연구원 임현정(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요 약 문]

1. 서론

가.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협력형 도시공동체운동은 과거처럼 운동과 정부를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협력을 통한 도시공동체의 재구성을 추구함.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마을공동체운동은 시민사회나 지방정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 즉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 도시 마을공동체운동은 그간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통해 누적된 도시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대전광역시에서도 그간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마을공동체운동을 지원하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함

- 첫째, 대전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실태를 파악함. 마을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친목, 사교, 봉사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의식성이 높은 활동임

- 둘째, 2013년,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모임을 대상으로, 모임의 형성과정, 주요 활동, 효과 등을 밝혀 볼 것임. 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업시행 이전부터 대전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운동을 조직했거나 참여했던 주민들임. 즉 대전지역 마을공동체 활동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대상임

-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해 봄

나.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양적방법와 질적방법 모두를 사용함. 연구 조사는 2013,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모임을 대상으로 진행함

- 현장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155개 설문지를 회수하여 총 138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함. 심층면접 사례는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의 논의를 통해 총 12개 마을만들기 모임을 선정함

2. 마을,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

가.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마을, 마을공동체

- 농촌사회의 마을 기준을 현대 한국의 도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름

- 도시의 삶은 농촌과 달리 일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이동성과 익명성이 높음. 여기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농촌적 의미의 마을 혹은 마을공동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 듦. 또한 도시의 말단 행정단위인 '동'(洞)도 인구규모가 크고 행정 편의에 의해 조직되거나 재조직되었기 때문에 주민 간 결속감이 매우 약함

-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마을만들기 조례에서는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구분해서 정의함

-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정의함. 반면에 마을공동체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함. 즉 마을이 다소 정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면 마을공동체는 목적의식적인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의미함.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정적인 ‘마을’에 ‘공동체성’을 불러 넣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음

나. 마을공동체의 기능

- 마을공동체의 순기능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심미적 측면 살펴볼 수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보다 협력, 소외보다 배려와 보살핌, 독점보다 나눔에 기반을 둔 지역순환과 공생의 경제를 추구함. 칼 폴라니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임”을 강조함(나종석, 2013). 즉 마을공동체 활동은 시장메커니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새로운 대안 경제 질서를 모색하고자 실험함

- 정치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자치역량을 증대함.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는 점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임. 즉 마을공동체는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자치 공간으로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나종석, 2013).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참여민주주의 및 사회민주화를 더욱 성숙하게 함

- 사회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은 개방적이면서 평등한 사회관계를 만들어 냄. 한국의 풀뿌리 지역사회는 혈연, 학연에 기초한 향우회, 동

창회 등의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연결망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반면에 마을공동체는 개방적이면서도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를 지향함.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토론 가능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함

- 문화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전통과 지역자원을 강조함. 이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유지함.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낡거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했던 주변부 문화를 새롭게 해석·활용함. 이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다줌

- 심리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함.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이웃 간 활발한 교류는 상호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풀어줌

3.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현황

- 현재 주목받고 있는 도시의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만들기 운동은 단순한 사교, 친목, 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즉 공공성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특징이 있음.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대전을 대표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마을어린이도서관', '도시농업', '농촌체험 마을공동체' 등임

- 이들 중에서 특히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마을어린이도서관 영역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대전시 재정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2년간 총 373개 마을모임이 참여함. 양적으로 보면 서구와 중구지역의 참여가 활발하고 대덕구는 다소 낮은 편임. 유형별로 보면 교육형, 환경생태형 비중이 높음(2014년 기준)

- 반면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마을기업은 서구, 유성구보다 중구와 동구의 비중이 높음. 그리고 마을어린이 도서관의 경우에는 서구와 대덕구의 비중이 다소 높음. 종합해서 볼 때 대전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서구, 다소 부족한 지역은 대덕구라고 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현황

영역	합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임	373	64	68	92	69	80
마을기업	31	4	8	5	5	9
마을어린이도서관	15	4	3	5	1	2
도시농업(텃밭공동체)	8	-	-	1	7	-
근교농촌체험마을	3	1	1	-	1	-
합계	430	73	80	103	83	91

주. 마을공동체의 영역별 현황

4. 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분석

가. 인구사회학적 특징

-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78.1%)응답자가 남성(21.9%)응답자도 보다 56.2%p 많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여성의 높은 참여는 사례 조사과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신청한 사업 내용들 또한 교육, 먹거리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여성의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들이 많음

-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35.6%), 50대(25.2%), 30대(17.8%) 순으로 높게 나옴. 특히 40대의 참여가 두드러짐. 성별 분포와 함께해서 보면, 대전형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계층은 '40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음

나. 마을만들기 모임의 기본 정보

- 마을만들기 진행 단계별로 응답자 분포를 보면, 모이자(55.8%), 해보자(38.4%), 가꾸자(3.6%) 순으로 나타남. 마을모임의 시작단계인 모이자 단계가 양적으로 우세함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활동 이외에도 참여했거나 참여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58.0%)는 응답이 '없다'(42.0%)는 응답보다 16%p 높음

- 거주지역과 활동지역의 일치 정도를 자치구별로 확인해 보면, 응답자의 87.7%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자치구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함

- 더 좁은 동별 일치 정도를 보면, 응답자의 74.0%가 현재 살고 있는 동 범위 안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이것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활동이 기본적으로 가까운 지역 혹은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줌

다. 마을만들기 모임의 활성화 정도와 영향

- '대전시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귀하의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87.8%)이 월등하게 높음. 즉 대전시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마을모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모임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다(65.5%)는 응답이 보통이다(30.9%) 혹은 그렇지 않다(3.7%)는 응답보다 월등하게 높음. 따라서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모임은 일정 수준 활성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

- '마을만들기 참여로 무엇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 수준에서는 이웃간의 관계회복(36.8%), 경험을 통한 교육학습기회(20.3%), 재미와 보람(1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옴

-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주민 간 유대감 강화(60.2%), 주민학습기회(1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옴. 즉 마을만들기 활동은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주민관계 개선, 학습기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라.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과 어려움

-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복수의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옴. 참여하는 주민들은 모임의 목적을 잘 공유(4.1)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신뢰(4.2), 갈등조정 능력(4.1)도 높게 나옴(최고점 5점)

- 하지만 전문기관과 전문가(3.4) 그리고 다른 마을모임과의 연계성(3.2)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즉 지역 내 정보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마을공동체 약화 원인과 지원방안

- '대전시의 마을공동체가 약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2개의 복수응답), 개인주의 문화 확산(19.8%)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공동의 공간(14.1%), 공동의 관심부족(14.1%), 주민간의 유대감 부족(11.8%), 경쟁적인 사회분위기(10.6%), 아파트 중심의 거

주와 생활(9.1%) 순으로 높게 나옴. 반면에 잦은 이사는 아주 낮게 나옴

-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2개의 복수응답), 행정절차 간소화(18.0%), 적극적인 사업홍보(16.1%), 공간조성(15.7%), 예산확대(11.5%), 주민역량강화교육(11.1%)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사업기간 확대(4.6%), 사업선정 및 평가의 투명성(3.8%), 전문가 상담체계구축(5.4%)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지원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57.6%)이 그렇지 않는 응답(8.0%)보다 49.6%p 더 높음. 평균값 또한 3.7로 양호한 수준임(최고점 5점)

- 세부분야별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사업설명(3.7), 멘토링 지원(3.6), 심사과정(3.6), 분야별 전문교육(3.2) 네트워크 사업(3.3)에 대한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최고점 5점)

2) 사례조사 분석결과

(1)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적평가

가. 활동의 효과

-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을 통해 기존 모임이 활성화되고 공적 위상을 확보하게 됨
  - 마을 내 끼리끼리 모임의 수준을 넘어 대전시 지원단체라는 공식성을 확보하게 됨

– 이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긍심이 커질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주민참여 유도와 공공기관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효과로 나타남

• 주민 간 유대 강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함
– 모임의 활동이 이웃, 세대 그리고 계층 사이의 소통 확대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간 연결고리의 역할을 함
– 참여자들 사이의 자족감을 넘어 지역 공동체로의 확산효과를 가짐

• 참여자들이 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됨
–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공통의 관심사가 형성됨
– 이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전함

• 유연한 조직체계와 협의체적 운영으로 실천을 통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있었음
– 모임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제도화된 직책을 두고 참여자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 평등성을 확대하고 있었음
– 내적 혹은 외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서로에 대한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많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나. 전망

•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활동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움
–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마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모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재정확보를 위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음
– 회비 등 자체 재정을 통해 운영해 온 모임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전시

의 지원이 안정적 운영과 사업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음

-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고민이 진행되고 있었음

  예) 마을 내 후원회 조직, 회원제 도입 등

•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에 관한 전망을 모색하는 사례도 있었음

- 일부이지만 비공식적 모임의 수준을 넘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을 고민하는 사례도 있었음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외적평가

가. 진행상 어려움

• 예산 집행에 있어 회계처리 방식이 복잡하여 어려움을 호소함

- 모임 내 회계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업 지원 연차별로 차이가 있음. 처음 참여하면서 회계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2013년에도 비해 지출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간소화를 바라고 있었음. 일부의 경우이지만 지급대상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필요한 서류제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기존에 해오던 관행을 따르기 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필요서류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활동비 등 인건비 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받아들이고 있음

- 식대와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음
- 알고 있는 경우라도 회계처리의 복잡함이나 지출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적은 것으로 인해 모임 자체 재정으로 해결하거나 참여자가 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음

• 예산 집행 중 항목조정의 융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사업과목 뿐만 아니라 예산 항목 변경에 대해서도 형식적이지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번거롭거나 까다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례가 많았음
- 또한, 인건비에서 임원이나 실무자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① 활동 전반

- 현재의 조건에서 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 하지만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지점이 제시됨
- 우선, 활동하고 있는 모임 간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멘토링 활동이나 비슷한 성격의 모임 간 연합모임 구성뿐만 아니라 개별 모임 대 모임 형식의 적극적인 연결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조정과 모임의 활동 내용별 또는 모임 유지 기간별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요구함
  - 실무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다수 사례에서 제기됨

② 멘토 지원

- 지원 연차별, 모임을 유지한 기간별로 요구하는 차원이 다소 달랐음

- 기간이 짧을수록 회계와 같은 실무차원의 지원과 상담 수요가 높았고, 기간이 길수록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의 지원 요청이 많았음

- 전체적으로는 멘토링 횟수를 늘려 줄 것과 수시로 실무차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다. 대전시에 바라는 점

•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사업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해 줄 것을 요청함

• 사업평가에 있어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진행과정과 모임이 마을에서 갖는 가치에 더 많은 중심을 둘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일자리 창출이나 지표로 표시되는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함

–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모임의 일상적인 활동에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그리고 비록 규모가 작고 양적 확대와 거리가 먼 사업이라도 그 모임이 마을에서 갖는 가치에 중심을 두어 평가해야 함

• 필요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규정 상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 모임들이 고가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고, 필요할 때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재정 부담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천막이나 음향장비와 같은 행사 용품,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마을 내 공간과 활동지원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마을만들기 모임을 마을 내에서 지원하고 주민과 주민, 모임과 모임을 연계해 줄 수 있는 마을활동가와 같은 인력지원이 필요함

– 모임 공간은 모여서 회의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음

5. 정책제언

- 도시의 마을공동체 운동은 도시의 문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 지속적인 마을모임 활동을 위해,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해 봄

■ 첫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함

- 현장 전문가들 또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주민활동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지방정부와 마을모임을 연결해 주듯이 마을모임과 마을모임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주민활동가 필요. 모임 별로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교류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이 필요함

- 마을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음. 도시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약화된 이유로 개인주의 문화 확산을 듦. 이는 현재의 마을공동체 운동이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율성과 공존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바꿔 말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적 공간이 필요함

■ 셋째, 마을만들기 모임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사회적자본센터 운영하고 있는 멘토 제도가 마을모임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따라서 멘토들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멘토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이 2년차가 되고, 이에 따라 마을모임들 또한 더욱 성숙해지면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

- 모임의 활동기간이 짧을 경우 회계 등과 같은 실무차원의 지원과 상담 수요가 높지만, 기간이 길수록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따라서 멘토링의 횟수와 상담 수준을 높여야 함

- 또한 모임과 모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자로써 멘토의 역할이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멘토의 역할은 주로 개별 마을모임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네트워크 형성자로까지 확장해야 함

■ **넷째,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함**

- 마을모임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업무로 실무적 부담이 높음. 따라서 행정절차와 증빙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본연의 마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모임 내에 행정업무 경험자 없는 경우, 그리고 활동한 연차가 짧은 수록 행정업무로 인한 부담이 높음

- 예산과 관련해서는 활동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즉 예산 집행 중 항목조정의 융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다섯째, 마을모임에 대한 평가는 수치화된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진행과정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함**

- 눈에 보이는 계량화된 성과보다는 진행과정과 모임이 마을에서 갖는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평가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치단체 및 공무원들이 마을모임에 참여해 주민들이 어떻게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음. 즉 양적인 평가방식을 고집할 경우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더욱 높아짐. 즉 행정 및 재정지원은 하되 성과관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해야 함**

-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활동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함. 홍보는 마을모임이 사람들로부터 의심이나 적대감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들임

목 차

1. 서론 ·····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
2) 연구방법과 구성 ····· 5

2. 마을,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 ····· 9
1) 마을, 마을공동체의 정의 ····· 11
2)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기능 ····· 13

3.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현황 ····· 19
1) 마을공동체의 일반적 현황 ····· 21
2) 마을공동체 영역별 현황 ····· 23

4. 조사결과 분석 ····· 33
1) 설문조사 개요 ····· 35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36
3) 사례조사 결과분석 ····· 68

5. 정책 제언 ····· 123

참고문헌 ····· 129

부록(1)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실태 및 지원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부록(2) : 대전의 마을공동체 현황 및 실태조사
부록(3)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문의견
부록(4) :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분석 내용 정리

표 목 차

<표1. 1> 사례연구대상 ·····6
<표1. 2> 사례연구 대상 분류표 ·····7
<표2. 1> 지역성과 목적에 따른 공동체의 유형 ·····11
<표2. 2>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 ·····14
<표2. 3> 마을만들기 진행단계 ·····15
<표2. 4>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기능 ·····17
<표3. 1> 마을공동체의 영역별 현황 ·····23
<표3.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내용 ·····24
<표3. 3> 연도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선정 현황 ·····25
<표3. 4> 유형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선정 현황 ·····25
<표3. 5> 모임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선정 현황 ·····26
<표3. 6> 자치구별 마을기업 현황 ·····27
<표3. 7> 유형별 마을기업 현황 ·····28
<표3. 8>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현황 ·····29
<표3. 9> 근교농촌체험마을공동체 ·····30
<표4. 1>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실태 및 지원방법 개선 설문조사 ·····36
<표4. 2>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 ·····38
<표4. 3>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표4. 4> 마을만들기 모임에 관한 기본 정보 ·····46
<표4. 5>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참여 ·····49
<표4. 6> 마을만들기 모임의 재정 ·····51
<표4. 7> 대전시의 도움정도 및 마을모임의 활성화 정도 ·····54
<표4. 8> 마을모임 단계별 활성화 정도 ·····54

〈표4. 9〉 마을만들기 활동이 개인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56
〈표4. 10〉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상황 ·····57
〈표4. 11〉 마을만들기 활동 중에 만난 어려움 ·····58
〈표4. 12〉 마을모임 단계에 따른 어려움 ·····59
〈표4. 13〉 대전지역 마을공동체 약화 원인 ·····61
〈표4. 14〉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62
〈표4. 15〉 마을모임 단계에 따른 지원방안 ·····62
〈표4. 16〉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방식에 대한 의견 ·····64
〈표4. 17〉 대전시장이 제안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의견 ·····65
〈표4. 18〉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66
〈표4. 19〉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세부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67
〈표4. 20〉 사례조사 대상 목록 ·····68

그 림 목 차

<그림3. 1>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 ·····22
<그림3. 2> 마을공동체 활동의 협력관계 ·····22
<그림4. 1>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 ·····37
<그림4. 2>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 ·····37
<그림4. 3> 응답자들의 거주지 분포 ·····38
<그림4. 4> 마을만들기 단계별 응답자 분포 ·····39
<그림4. 5> 주민모임 별 응답자 분포 ·····40
<그림4. 6> 마을만들기 모임 참여 인원 ·····40
<그림4. 7> 마을만들기 모임의 참여 역할별 응답자 분포 ·····41
<그림4. 8> 마을만들기 마을모임 참여기간 ·····42
<그림4. 9>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임 이외의 마을공동체 활동 여부 ·····43
<그림4. 10> 마을공동체 참여 총 기간 ·····43
<그림4. 11> 거주지역와 활동지역의 구별 일치 ·····44
<그림4. 12> 거주지역와 활동지역의 동별 일치 ·····45
<그림4. 13>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알게 된 통로 ·····47
<그림4. 14> 마을만들기 모임에 도움을 준 단체 및 기관 ·····48
<그림4. 15> 마을만들기 재정 충원 방식 ·····50
<그림4. 16> 마을만들기 모임 회비 납부여부 ·····51
<그림4. 17> 대전시 지원의 도움정도 ·····52
<그림4. 18> 마을만들기 모임의 활성화 정도 ·····53
<그림4. 19> 대전시 지원의 도움정도 및 마을모임 활성화 평균값 ·····53
<그림4. 20> 마을만들기 활동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 ·····55
<그림4. 21> 마을만들기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55

〈그림4. 22〉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상태 ·····57
〈그림4. 23〉 마을만들기 활동 중 어려움 ·····58
〈그림4. 24〉 대전지역 마을공동체 약화 원인 ·····60
〈그림4. 25〉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61
〈그림4. 26〉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방식에 대한 의견 ·····63
〈그림4. 27〉 상시지원과 공모방식으로 구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64
〈그림4. 28〉 대전시장이 제안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의견 ·····65
〈그림4. 29〉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66
〈그림4. 30〉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세부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67

1.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구성

1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도시 마을공동체운동은 최근 들어 일어난 새로운 사회현상은 아님. 현재와 다른 형태와 방법이지만 한국의 도시화과정과 궤적을 같이하면서 도시 마을공동체운동이 변화하고 발전해옴(정규호, 2012)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남. 이로 인해 도시빈민층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함. 따라서 도시 공동체운동은 1980년대까지 도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호부조운동, 재개발 및 강제철거에 맞선 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됨. 당시 도시 공동체운동은 국가권력과 충돌하면서 전개한 민중운동의 성격이 강함

- 1990년대 절차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확대로 도시 중산층의 참여가 활발해짐. 따라서 중산층의 필요에 맞게 생활세계를 지키고 가꾸는 생활밀착형 운동으로 변화함. 운동의 내용 또한 담장 허물기 운동, 마을도서관 운동 등 생활현장과 밀착된 형태의 운동이 전개됨.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 민관 협치를 통한 협력형 도시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함(정규호, 2012)

- 협력형 도시공동체운동은 과거처럼 운동과 정부를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협력을 통한 도시공동체의 재구성을 추구함.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마을공동체운동은 시민사회나 지방정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 즉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 도시 마을공동체운동은 그간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통해 누적된 도시문

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대전광역시에서도 그간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마을공동체운동을 지원하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였음. 시민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226개, 2014년에는 147개 마을모임을 지원함

- 이처럼 대전광역시에서 도시 마을공동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에 과한 체계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실정임

(2) 연구목적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함

- 첫째, 대전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실태를 파악함. 마을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친목, 사교, 봉사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의식성이 높은 활동임

- 둘째, 2013년,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모임을 대상으로, 모임의 형성과정, 주요 활동, 효과 등을 밝혀 볼 것임. 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업시행 이전부터 대전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운동을 조직했거나 참여했던 주민들임. 즉 대전지역 마을공동체 활동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대상임

-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해 봄

2) 연구방법과 구성

(1)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양적방법와 질적방법 모두를 사용함

- 양적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는 1차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보완을 위해 2차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 1차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10일,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장에서 진행하였고, 총 126개의 설문지를 회수함

-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3년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8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 진행함. 총 29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음. 응답률이 낮은 것은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7월 10일 현장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조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 현장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155개 설문지를 회수함. 하지만 특정 주민모임 참여자들이 대거 응답(24개)함. 따라서 이들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무작위로 7개 설문지만을 분석해 포함함. 결국 총 138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함

- 질적방법으로는 심층면접을 실시함. 구조화된 질문지를 숙지한 연구자들이 마을만들기 주민모임을 방문하고 핵심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보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 전문가 및 지역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부록. 3> 참조). 특히 이들의 의견은 정책제언을 구성하는 도움을 줌

- 심층면접 사례는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의 논의를 통해 총 12개 마을만들기

모임을 선정함. 조사대상 마을만들기 모임은 지역, 추진단계, 활성화 정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함(<표1. 1> 참조)

<표1. 1> 사례연구대상

연번	구분*	조사일자	구	모임형태	사업유형
1	2013-A-2	2014.8.29	동구	주민	생활갈등 조정
2	2013-B-11	2014.8.22	동구	주민	교육
3	2013-B-43	2014.8.19	동구	주민	문화역사
4	2013-B-131	2014.8.26	대덕	주민	환경생태
5	2013-B-65	2014.8.20	서구	비영리	환경생태
6	2013-C-117	2014.8.28	유성	주민	교육
7	2013-C-46	2014.9.4	중구	주민	마을미디어
8	2014-A-77	2014.8.30	서구	주민	환경생태
9	2014-A-140	2014.8.20	대덕	주민	교육
10	2014-A-78	2014.8.26	서구	비영리	복지
11	2014-B-98	2014.8.21	유성	주민	문화역사
12	2014-B-116	2014.9.5	유성	주민	마을미디어

* 구분 :

<표1. 2> 사례연구 대상 분류표

구분	구분	개수
연차	2013년	5
	2014년	7
단계	모이자	4
	해보자	6
	가꾸자	2
지역	동구	2
	중구	2
	서구	3
	유성구	3
	대덕구	2
사업 유형	문화역사	2
	환경생태	3
	복지	1
	생활정비·갈등조정	1
	마을미디어	2
	교육	3
모임 형태	주민모임	12
	비영리민간단체	2

(2) 연구의 구성

- 이 연구는 우선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정의, 형성과정, 기능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2장),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현황을 살펴봄(3장). 이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함(4장). 끝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함(5장)

2. 마을,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

1) 마을, 마을공동체의 정의

2)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기능

2 마을,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

1) 마을, 마을공동체의 정의

가.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의 마을, 마을공동체

- 사전적 의미로 '마을'은 '여러 집이 한 때 모여 있는 곳'을 지칭하는 장소 개념.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동네'(洞內)와도 유사함(Daum 국어사전)

- 하지만 마을은 '곳'이라는 장소만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님.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마을은 장소와 함께 생산, 생활, 놀이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의미함.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마을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즉 마을이 곧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성원(혹은 주민)들 간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공유하지 않지만, 높은 지역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 지역성이란 오랜 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의 산물로서 전통이 지속되고 성원간의 전인격적 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여부를 말함(이재열, 2006)

<표2. 1> 지역성과 목적에 따른 공동체의 유형

구분		목적성	
		낮음	높음
지역성	높음	마을공동체	코뮌 야마기시 공동체 신앙촌
	낮음	협동조합 직능단체	이념적 결사체 시민단체

출처: 이재열(2006)

- 현재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마을은 말단 행정구역인 '리(里)'와 일치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함. 리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지속해 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도 함. 하지만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말단 행정구역인 리(里)와 마을이 일치되어가는 추세임

- 농촌사회를 기준으로 할 때 마을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공유함. 즉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구분할 필요 없이 이미 마을이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농촌의 마을=장소(가까운 거리)+공동체(생산+놀이+역사+전인격적 관계)

나.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마을, 마을공동체

- 농촌사회의 마을 기준을 현대 한국의 도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름

- 도시의 삶은 농촌과 달리 일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이동성과 익명성이 높음. 여기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농촌적 의미의 마을 혹은 마을공동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 듦. 또한 도시의 말단 행정단위인 '동(洞)'도 인구규모가 크고 행정 편의에 의해 조직되거나 재조직되었기 때문에 주민 간 결속감이 매우 약함

-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마을만들기 조례에서는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구분해서 정의함

-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정의함. 반면에 마을공동체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함.[1] 즉 마을이 다소

1) 서울시 마포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09년 제정)

정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면 마을공동체는 목적의식적인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의미함.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정적인 '마을'에 '공동체성'을 불러 넣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음[2)]

- 앞선 <표2. 1>를 기준으로 볼 때 농촌의 마을공동체는 지역성이 높고 목적의식성이 낮지만, 도시의 마을공동체는 지역성이 낮고 목적의식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능동적인 해석은 현대 도시에서 마을이 갖는 대안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내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목적의식성이 높다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함. 즉 '모두를 위한 (하나의) 마을은 없음'(권단 외, 2014). 도시의 특성상 가까운 이웃도 직업, 계층, 가치관, 문화적 취향 등이 다양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도시의 마을공동체는 층화된 여러 사회적 관계망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

2)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기능

가. 마을공동체의 형성

- 마을공동체의 형성과정은 크게 4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김찬동 외, 2012; 여관연, 2013)

- 1단계는 참여활성화 단계로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이성적·감정적 결

2) 서울시 마포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09년 제정)

합을 통해 소속감을 갖게 되는 시기임

- 2단계는 공동체성 구비단계로 이동이 빈번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 시기임. 따라서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킴

- 3단계는 준주민자치적 단계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식적·비공식적 형태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기임

- 4단계는 준단체자치적 단계로 대의 기능까지 구비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공식적인 행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임

- 이처럼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는 구성원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서로가 소속감을 느끼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공동체를 지속하려는 작은 실천, 구성원들의 복리증진, 이후 대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감

<표2. 2>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

성장단계	키워드	사업주체별 내용
1단계 (참여활성화단계)	공동체에 대한 애착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편안함 등의 느낌을 가지게 됨
2단계 (공동체성구비 단계)	유대감, 호혜성, 응집력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키며,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3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	운영체제, 재원, 서비스 공급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4단계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대의성, 시설공급, 행정권한 이관	구성원들만으로 자치가 가능하며, 행정은 지원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단계

출처: 김찬동 외(2012; 13-14)·여관연(2013)

-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공동체 심화라는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단편적 사업수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즉 마을만들기는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전략적 수단임

- 마을만들기 성장단계는 주민참여수준과 사업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표2. 3> 참조)

- 대전광역시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하자면, '모이자' 단계에서는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원함. '해보자' 단계에서는 발굴된 마을의제를 사업화하는 단계임. 마지막으로 '가꾸자' 단계는 1, 2단계를 통해 성장한 마을활동 및 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단계임

<표2. 3> 마을만들기 진행단계

구분	성장단계			분류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대전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사업내용, 주민참여수준
서울시	씨앗 단계	새싹 단계	희망 단계	사업내용, 주민참여수준
진안군	기초 형성기	기반 구축기	주민주도 단계	사업내용, 참여주체
김선기 (2007)	주민참가단계	주민기획단계	주민주도 단계	주민참여수준
이규선 외 (2012)	도입기	형성기	발전기	참여주체, 사업전략 및 성격 등
마쓰오 (2003)	초기단계	성숙기	발전기	참여주체별
송승현 (2008)	준비 단계	구상 단계	실천 단계	관리 단계	참여주체, 사업전략 참여주체의 지원사항 등

주1. 진안군에서 송승현까지는 김찬동 외(2012; 13-14)·여관연(2013)에서 인용

나. 마을공동체의 기능

-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고 말함(오완석, 2013)

- 마을공동체의 순기능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심미적 측면 살펴볼 수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보다 협력, 소외보다 배려와 보살핌, 독점보다 나눔에 기반을 둔 지역순환과 공생의 경제를 추구함. 칼 폴라니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임”을 강조함(나종석, 2013). 즉 마을공동체 활동은 시장메커니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새로운 대안 경제 질서를 모색하고자 실험함

- 정치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자치역량을 증대함.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는 점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임. 즉 마을공동체는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자치 공간으로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나종석, 2013).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참여민주주의 및 사회민주화를 더욱 성숙하게 함

- 사회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은 개방적이면서 평등한 사회관계를 만들어 냄. 한국의 풀뿌리 지역사회는 혈연, 학연에 기초한 향우회, 동창회 등의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연결망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반면에 마을공동체는 개방적이면서도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를 지향함.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토론 가능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함

- 문화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전통과 지역자원을 강조함. 이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유지함.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낡거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했던 주변부

문화를 새롭게 해석·활용함. 이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다줌

- 심리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함.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이웃 간 활발한 교류는 상호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풀어줌

<표2. 4>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기능

구분	내용
경제적 측면	지역순환과 공생의 경제
정치적 측면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
사회적 측면	개방적이고 평등한 사회관계 심화
문화적 측면	지역전통과 자원강조
심리적 측면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생활의 즐거움 제공

3.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현황

1) 마을공동체의 일반적 현황

2) 마을공동체의 영역별 현황

3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의 현황

1) 마을공동체의 일반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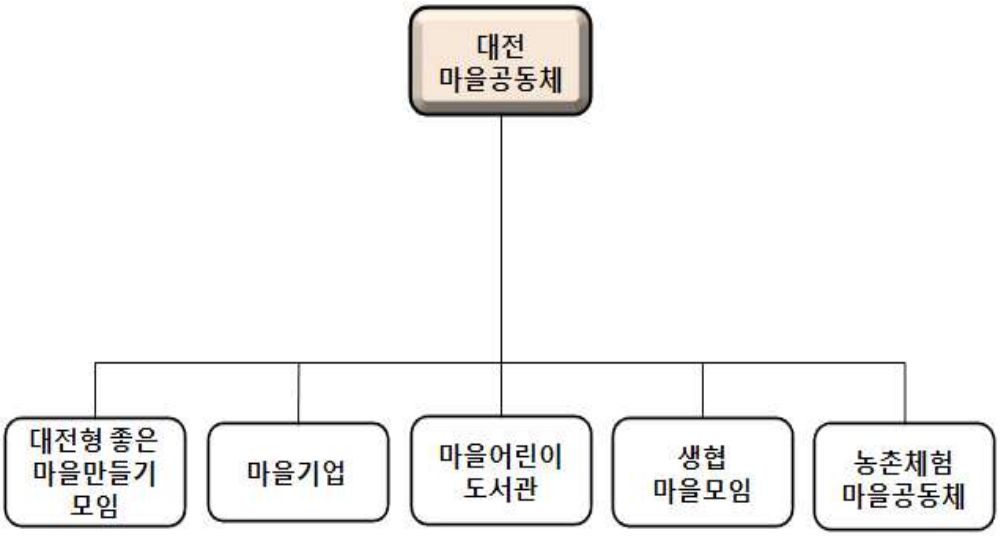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은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의식성이 높은 주민활동을 지칭함. 즉 공공성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활동을 의미함

- 따라서 단순한 사교,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마을공동체 현황에서 제외함. 그리고 자원봉사모임은 마을공동체 활동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또한 제외하였음

-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마을공동체 활동에 포함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특성이 사라져 버릴 위험성이 있음. 즉 마을공동체 운동은 동정심에 기초한 광범위한 이타적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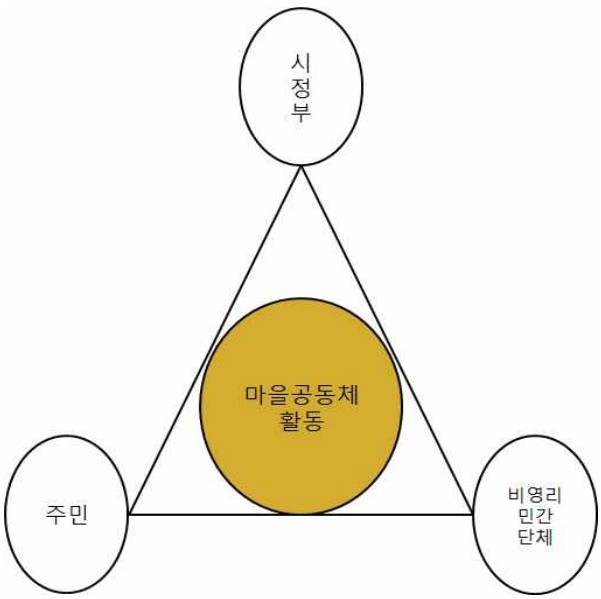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은 생활세계 차원에서 생활양식을 변화시켜나가면서 나눔과 호혜 그리고 순환의 사회와 경제모델을 구축해나간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적 특징을 갖고 있음(김성균, 2014)

- 공공성과 대안적 가치추구를 중심으로 대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크게 6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임에서부터, 마을기업, 마을어린이도서관, 도시공동체농업, 근교농촌체험마을 등 여러 영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그림3. 1> 참조)



<그림3. 2>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

- 그리고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대전시(자치구 포함)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



<그림3. 3> 마을공동체 활동의 협력관계

- 현재 6개 영역에서 총 430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짐.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임, 마을기업, 마을어린이도서관 등의 활동 순으로 높음(<표3. 1> 참조)

<표3. 1> 마을공동체의 영역별 현황

영역	합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임	373	64	68	92	69	80
마을기업	31	4	8	5	5	9
마을어린이도서관	15	4	3	5	1	2
도시농업(텃밭공동체)	8	-	-	1	7	-
근교농촌체험마을	3	1	1	-	1	-
합계	430	73	80	103	83	91

2) 마을공동체 영역별 현황

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됨

- 마을만들기 사업단계는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모이자'(1단계, A형), 발굴된 의제를 사업화하는 '해보자'(2단계, B형), 모이자와 해보자 단계를 통해 성장한 마을활동과 사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가꾸자'(3단계, C형)단계로 나누어 추진됨(<표3. 2> 참조)

- 주민공모 방식으로 선정·지원하며 참가 자격은 7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그리고 재정은 모이자 200만원, 해보자 500만원, 가꾸자 800만원 이내로 지원함(2014년 기준)

<표3.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내용

구분	사업비	사업내용
모이자(A형) [마을조사·주민학습]	200만원 이내	· 지역자원조사 ·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마을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 마을조사, 학습, 견학 등 활동지원
해보자(B형) [소규모 공동체사업]	500만원 이내	· 마을문제를 주민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마을주민공동체 사업 ·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모임의 발굴 및 주민공동체 활동가 발굴육성사업 · 마을공동체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사업
가꾸자(C형) [중규모 공동체사업]	800만원 이내	· 마을문제를 주민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마을주민 공동체사업 및 마을공동체를 간의 공동협력 사업

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4: 4)

- 2013년에는 226개 사업, 2014년에는 147개 마을모임을 지원함. 자치구별로 보면, 2013년에는 서구와 중구, 2014년에는 서구와 유성구 참여비율이 다소 높음(<표3. 3> 참조)

- 추진 단계별로 보면 2013년에는 모이자 단계가 전체의 75.7%, 해보자 이상의 단계는 24.3%임. 반면에 2014년에 모이자 단계는 67.3%로 줄어들었고, 해보자 이상 단계는 32.7%로 증가함. 즉 좀 더 성숙한 마을모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해보자 이상의 단계가 8.4%p 증가했음. 이는 2013년도의 사업성과라고 할 수 있음

<표3. 3> 연도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선정 현황

구분	합계	2013년(226개)				2014년(147개)			
		합계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합계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대덕구	64	35	26	8	1	29	19	9	1
동구	68	39	30	8	1	29	18	10	1
서구	92	59	44	14	1	33	25	8	-
유성구	69	34	23	10	1	35	22	13	-
중구	80	59	48	10	1	21	15	4	2
합계	373	226	171	50	5	147	99	44	4

- 유형별 분류를 보면 교육형(29.9%), 환경생태형(22.5%), 문화산업형(17.0%) 등의 비중이 높음. 즉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생활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음(<표3. 4> 참조)

- 자치구별 상황을 보면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교육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에 동구에서만 환경생태형 비중이 높고, 교육형 비중은 낮은 편임

<표3. 4> 유형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선정 현황(2014년 기준)

구분	합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의제발굴	11	3	2	3	2	1
산업형	3	1	-	2	-	-
교육형	44	9	2	14	11	8
문화산업형	25	7	4	5	7	2
환경생태형	33	5	12	5	8	3
복지형	11	1	4	3	1	2
생활정비·갈등조정형	12	3	3	1	2	3
마을미디어	8	-	2	-	4	2
합계	147	29	29	33	35	21

- 공모사업에 신청한 주민모임 유형을 보면, 대다수가 7인 이상의 주민모임으로 전체의 91.2% 차지함, 다음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사업신청은 주민모임으로 했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민간사회단체의 지원 혹은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음

- 협동조합의 참여가 적은 이유는 2012년 2월 협동조합기본법 실행 이후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많이 결성되었지만, 활동기간이 짧아 아직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내부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표3. 5> 모임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선정 현황(2014년 기준)

구분	합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주민모임	134	26	28	29	33	18
비영리	12	3	-	4	2	3
협동조합	1	-	1	-	-	-
합계	147	29	29	33	35	21

나.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임. 마을기업은 일차적인 목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하지만, 기업이 마을단위로 조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김도균·정선기, 2014)

- 안전행정부에서는 마을기업을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마을기업은 단순히 커뮤니티 비즈니스로만 해석할 수 없음. 왜냐하면 마을기업은 현대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도시문제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해 보고자하는 도시공동체운동의 맥락 속에서 결성·활동하기 때문임

- 마을기업은 사적기업과 다르게 협력, 보살핌, 나눔, 참여, 지역자원, 순환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적인 사회경제적 질서를 추구함

- 현재 대전에는 총 31개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자치구별로 마을기업 분포를 보면, 중구 및 동구 비중이 높고 대덕구는 비중은 낮은 편임 (<표3. 6> 참조)

<표3. 6> 자치구별 마을기업 현황(2014년 10월 기준)

구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합계
개수 (%)	4 (13.0)	8 (25.8)	5 (16.1)	5 (16.1)	9 (29.0)	31 (100.0)

자료: 대전마을기업연합회(http://cafe.daum.net/2010djcb)

- 유형별 마을기업 분포를 보면, 도시마을공동체형(35.5%), 생태농업형(29.0%), 자활공장점포형(19.4%), 생활여가문화형(16.1%) 순으로 비중이 높음. 특히 도시마을공동체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출발하여 제도화된 측면이 강함

<표3. 7> 유형별 마을기업 현황(단위: 개, %)

구분	개(%)	마을기업
도시마을 공동체형	11 (35.5)	2014년: 협동조합 희망의 밥집 2013년: 품앗이마을협동조합, 희망바라기, 백두한라 2012년: 넥스트클럽, 교육공동체 한뼘 더, 원도심레츠, 초원미래나눔, 한밭레츠 좋은 이웃 2011년: 도담도담 맘스클럽 2010년: 관저품앗이공동체
생태 농업형	9 (29.0)	2014년: 안영버섯마을 2013년: 무수천하마을 2012년: 추동가래울, 2011년: 장동쉬엄쉬엄, 어남동학쑥, 중세동작목반, ㈜파랑새 2010년: 세동백세밀영농조합, 매노3동 영농조합
자활 공장 점포형	6 (19.4)	2014년: 대덕밸리과학기술인협동조합, ㈜ 그린디자인, 나무이야기협동조합 2011년: 행복한나눔센터, 2010년: 민들레공작소, 보리와밀,
생활여가 문화형	5 (16.1)	2013년: 극단씨앗 2012년: 극단 아낌없이주는나무, 2011년: 대흥동립만세, 대살미생활문화공동체, 유성로드스쿨
합계	31 (100)	-

자료: 대전마을기업연합회(http://cafe.daum.net/2010djcb)

다. 마을어린이도서관

- 현재 대전에는 총 15개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있음.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5개), 대덕구(4개), 동구(3개), 중구(2개), 유성구(1개) 순으로 높음(<표3. 8> 참조)

-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은 풀뿌리주민운동에서 출발함. 처음으로 2005년 3월 동구 석교동에 알짬마을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함. 당시 알짬마을어린이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부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현실을 비시장적 공동체운동의 방식으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주민운동임.[3)]

-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은 주민의 돈과 시간, 재주 나눔을 통해 교육과 문화를 사교육과 같은 시장에서 구매되는 것만이 아니라 엄마들과 아이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감. 이후 이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우리 마을에도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현재에 이름[4]

<표3. 8>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현황

자치구	개수	동	이름
대덕구	4	비래동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와동	또바기어린이도서관
		대화동	차오름어린이도서관
		송촌동, 법동	마루어린이도서관
동구	3	석교동	알짬어린이도서관
		홍도동	어깨동무어린이도서관
		추동	호숫가어린이도서관
서구	5	월평동	꿈터어린이도서관
		도마동	달팽이어린이도서관
		갈마동	땅콩어린이도서관
		내동	작은나무어린이 도서관
		관저동	해뜰어린이도서관
유성구	1	전민동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중구	2	중촌동	짜장어린이도서관
		태평동	짝꿍어린이도서관

출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cafe.daum.net/doseokwonall

3)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2007. 6.23). 「2007년도 제5회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공모, 마을어린이도서관 확산을 통한 생활공동체운동기반구축」
4)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2007. 6.23). 「2007년도 제5회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공모, 마을어린이도서관 확산을 통한 생활공동체운동기반구축」

라. 도시농업(텃밭공동체)

- 도시농업은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도시환경개선,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 시정부에 의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시정부의 텃밭분양은 주로 개별 가족단위로 이루어져 공동체 활동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개인 주말농장에 가까움

- 반면에 대전도시텃밭연대는 개인경작이 아니라 시민들이 연대에 기초한 공동경작을 지향함. 현재 대전(8개) 및 세종시(1개)에서 9개의 텃밭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음

마. 근교농촌체험마을

- 대전 근교 농촌마을은 농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도시민들의 체험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농어촌체험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자연경관, 문화, 농어업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동구 찬샘마을(직동)과 대덕구 두메마을(이현동)은 각종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염색, 도예체험 등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

<표3. 9> 근교농촌체험마을공동체

자치구	동	이름	유형
대덕구	이현동	두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동구	직동	찬샘마을	농어촌체험마을
유성구	송정동	선창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4. 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사례조사 결과분석

4 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설문조사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임

- 설문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부터 마을만들기 모임의 활성화 정도, 영향,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시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제언까지를 담고 있음

(2) 조사방법

- 1차 설문조사는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중간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함. 자료보완(2013년 참여자)을 위한 2차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함. 현장조사와 온라인조사를 통해 확보한 158개의 설문지 중에서 138개의 설문지를 통계프로그램 SPSS 18을 사용하여 분석함
- 현장 설문조사는 중간컨퍼런스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온라인 조사는 온라인 전문조사기관의 서버를 이용함. 즉 온라인 설문지를 모임 대표 및 실무자에게 발송하여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함

(3) 조사기간

- 현장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10일, 온라인 조사는 2014년 8월 15일~9월 15일 사이에 진행함

(4) 조사대상

- 2013,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자

<표4. 1>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실태 및 지원방법 개선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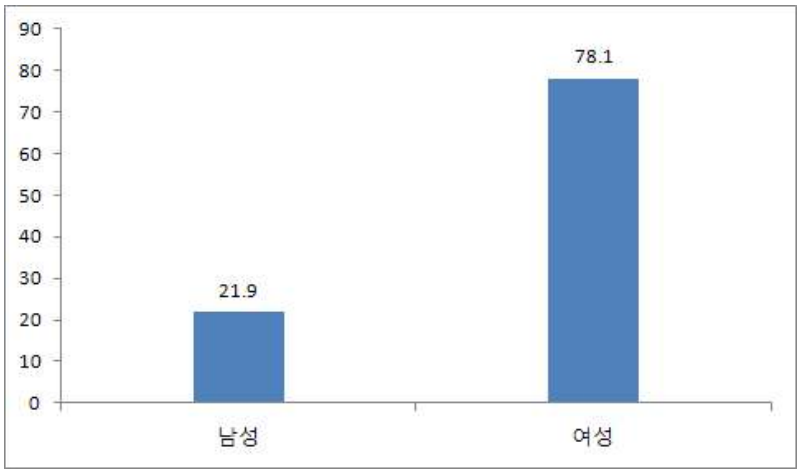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 사 명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실태 및 지원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대상	20.13,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참여자
조사방법	전수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면대면 설문조사(2014년 7월 10일) 온라인 설문조사(2014년 8월 15일~9월 15일)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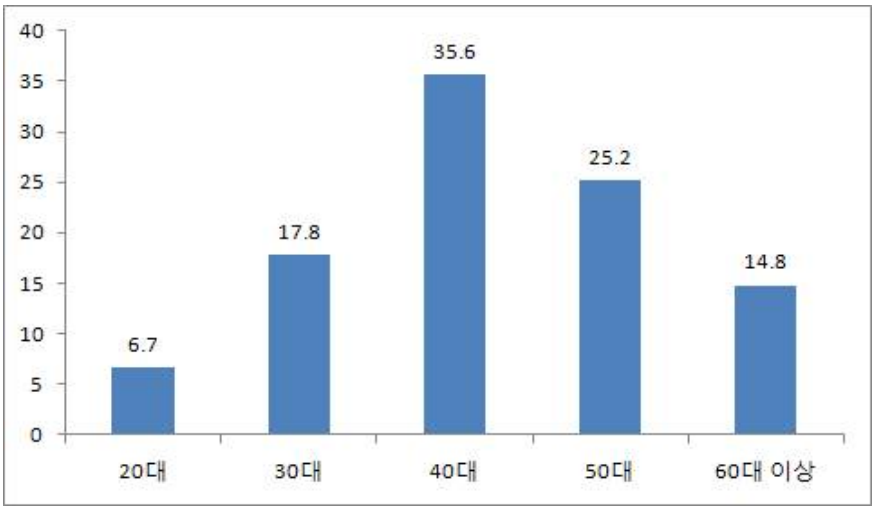
가. 인구사회학적 특징

-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78.1%)응답자가 남성(21.9%)응답자도 보다 56.2%p 많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여성의 높은 참여는 사례 조사과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신청한 사업 내용들 또한 교육, 먹거리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여성의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들이 많음



<그림4. 1>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단위: %, N=137)

-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35.6%), 50대(25.2%), 30대(17.8%) 순으로 높게 나옴. 특히 40대의 참여가 두드러짐. 앞서 살펴본 성별 분포와 함께해서 보면, 대전형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계층은 '40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4. 2>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단위: %, N=135)

- 성별에 따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은퇴할 나이인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여성들은 30대에서 50대까지 폭넓게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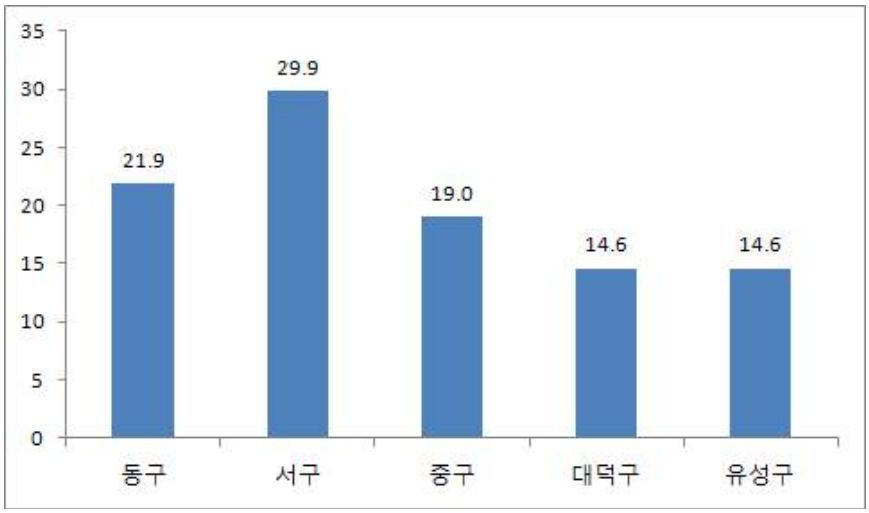
<표4. 2>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20대	3(10.7)	6(5.6)
30대	2(7.1)	22(20.6)
40대	5(17.9)	43(40.2)
50대	7(25.0)	27(25.2)
60대 이상	11(39.3)	9(8.4)
합계	28(100.0)	107(100.0)

chi-square=20.508, df=4. p<0.01

- 응답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서구(29.9%), 동구(21.9%), 중구(19.0%) 순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대덕구(14.6%)와 유성구(14.6%)에 비해 동구, 서구, 중구지역 거주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편임



<그림4. 3> 응답자들의 거주지 분포(단위: %, N=137)

<표4. 3>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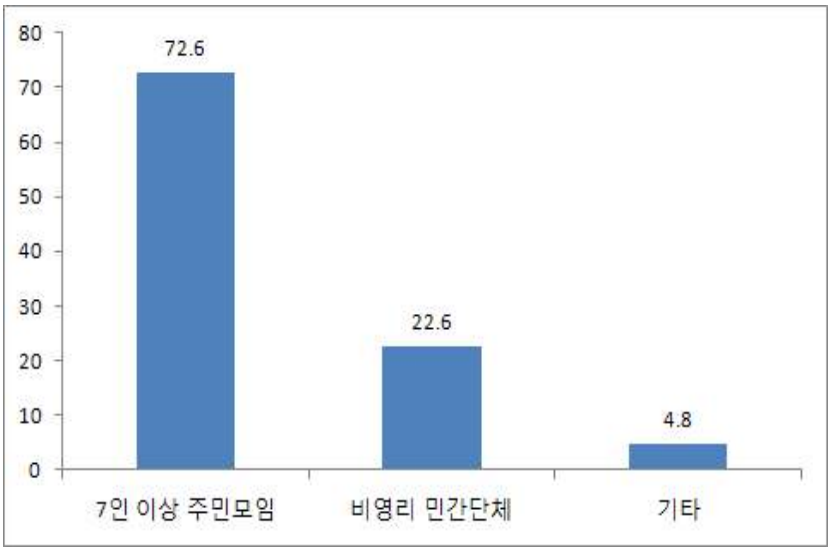
문항(N)	설문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137)	남성	30	21.9
	여성	107	78.1
연령 (135)	20대	9	6.7
	30대	24	17.8
	40대	48	35.6
	50대	34	25.2
	60대 이상	20	14.8
거주지 (137)	동구	30	21.9
	서구	41	29.9
	중구	26	19.0
	대덕구	20	14.6
	유성구	21	14.6

나. 마을만들기 모임의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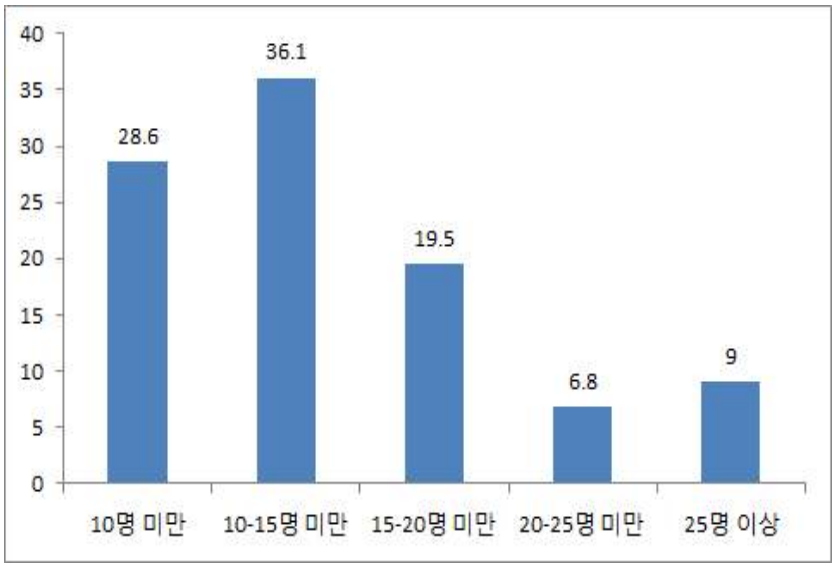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진행 단계별로 응답자 분포를 보면, 모이자(55.8%), 해보자(38.4%), 가꾸자(3.6%) 순으로 나타남. 마을모임의 시작단계인 모이자 단계가 양적으로 우세함

<그림4. 4> 마을만들기 단계별 응답자 분포(단위: %, N=135)

- 주민모임별로 응답자 분포를 보면, 7인 이상의 주민모임(72.6%), 비영리 민간단체(22.6%)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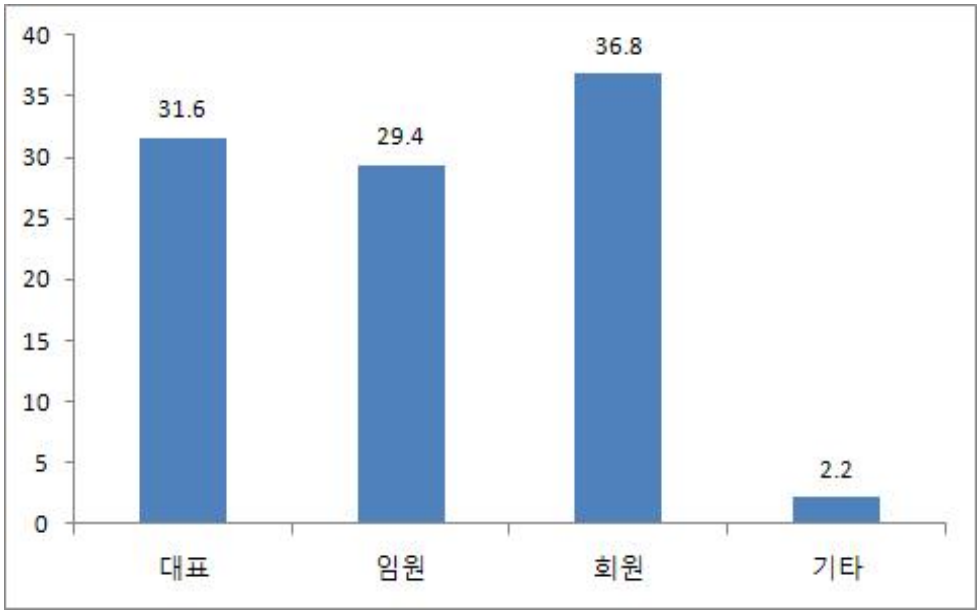
<그림4. 5> 주민모임 별 응답자 분포(단위: %, N=124)



<그림4. 6> 마을만들기 모임 참여 인원(단위: %, N=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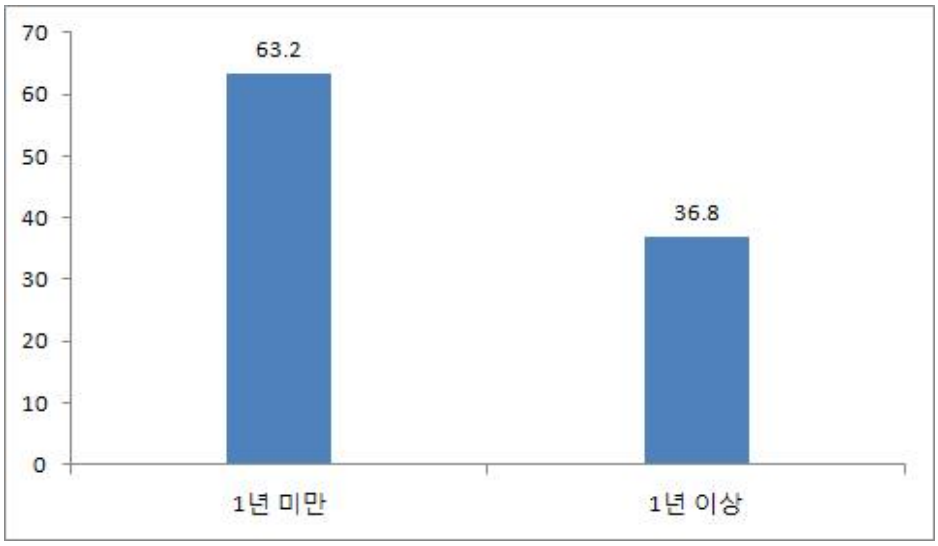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모임 규모에 따라 응답자 분포를 보면, 10~15명 미만(36.1%), 10명 미만(28.6%), 15~20명(19.5%) 미만 순으로 높음. 즉 20명 미만이 전체의 84.2%를 차지함

- 응답자들이 마을모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대표(31.6%), 임원(29.4%), 회원(36.8%) 순으로 나옴. 대표, 임원 등 마을모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구성원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함.



<그림4. 7> 마을만들기 모임의 참여 역할별 응답자 분포(단위: %, N=136)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임에 몇 년이나 참여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년 미만이라는 응답(63.2%)이 1년 이상(36.8%)이라는 응답보다 26.4%p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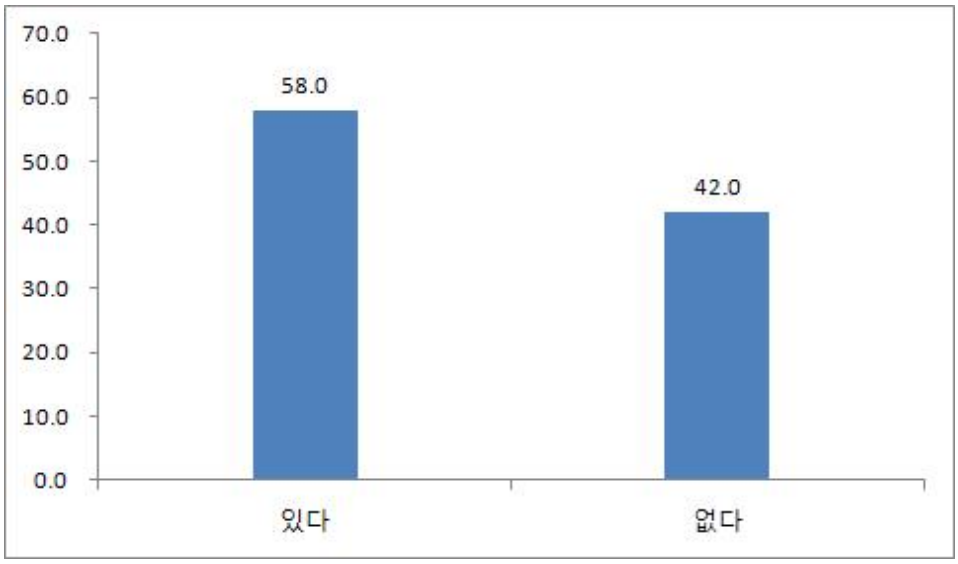


<그림4. 8> 마을만들기 마을모임 참여기간(단위: %, N=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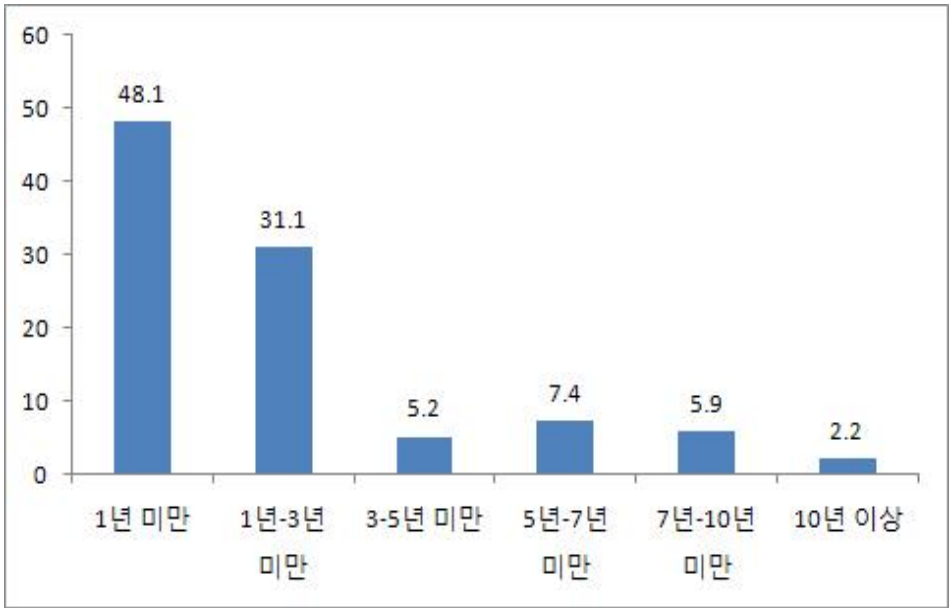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활동 이외에도 참여했거나 참여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58.0%)는 응답이 '없다'(42.0%)는 응답보다 16%p 높음. 이는 여타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새로운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이번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42.0%)도 높게 나타남. 이를 종합해서 보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 대전시 마을공동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층을 두텁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활동에 총 몇 년이나 참여 하셔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년 미만이라는 응답(79.2%)이 3년 이상이라는 응답(20.7%)보다 58.5%p 더 높음. 즉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새로운 참여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4. 9>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임 이외의 마을공동체 활동 여부
(단위: %, N=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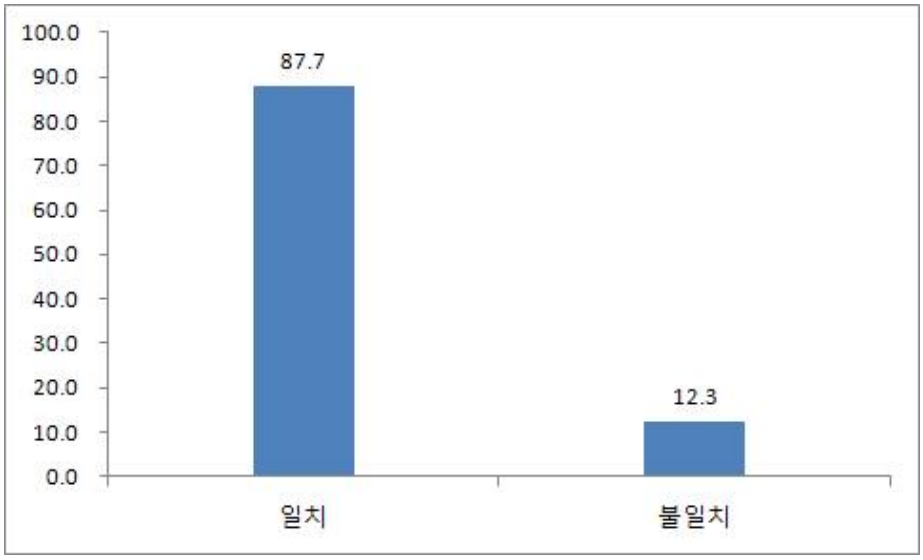


<그림4. 10> 마을공동체 참여 총 기간(단위: %, N=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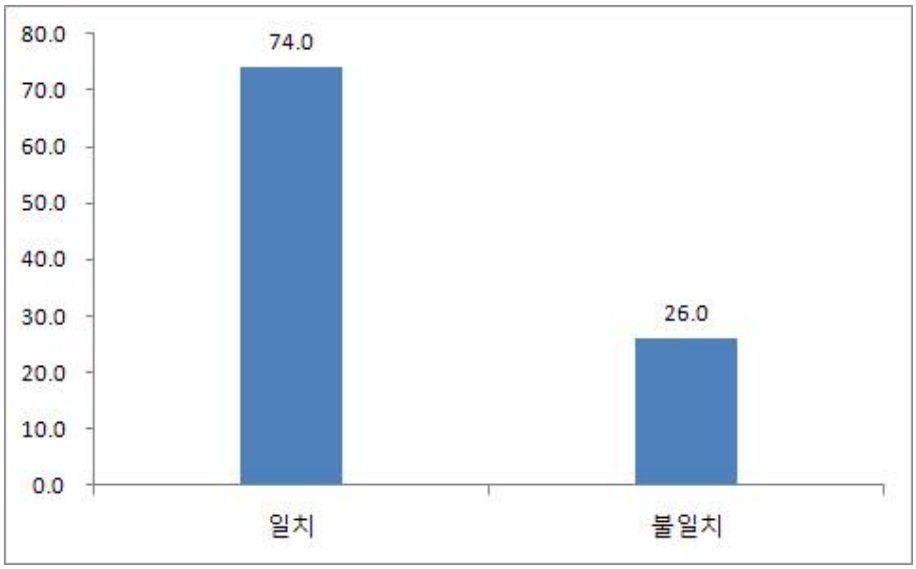
- 거주지역과 활동지역의 일치 정도를 자치구별로 확인해 보면, 응답자의 87.7%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자치구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함(<그림4. 11> 참조)

- 더 좁은 동별 일치 정도를 보면, 응답자의 74.0%가 현재 살고 있는 동 범위 안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그림4. 12> 참조)

- 이것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활동이 기본적으로 가까운 지역 혹은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줌



<그림4. 11> 거주지역와 활동지역의 구별 일치(단위: %, N=130)



<그림4. 12> 거주지역와 활동지역의 동별 일치(단위: %, N=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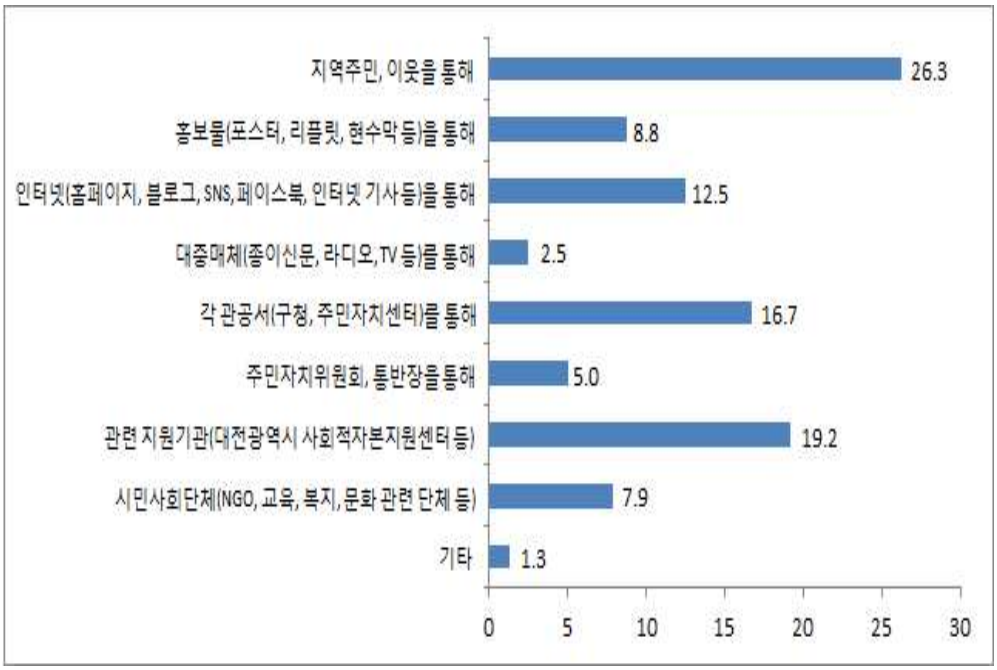
<표4. 4> 마을만들기 모임에 관한 기본 정보

문항	설문항목	빈도(명)	비율(%)	N
마을만들기 사업 유형	모이자	77	55.8	135
	해보자	53	38.4	
	가꾸자	5	3.6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형태	7인 이상 주민모임	90	72.6	124
	비영리민간단체	28	22.6	
	기타	6	4.8	
마을만들기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 규모	10명 미만	38	28.6	133
	10-15명 미만	48	36.1	
	15-20명 미만	26	19.5	
	20-25명 미만	9	6.8	
	25명 이상	12	9.0	
마을만들기 모임에서 역할	대표	43	31.6	136
	임원	40	29.4	
	회원	50	36.8	
	기타	3	2.2	
마을만들기 모임 참여기간	1년 미만	72	63.2	114
	1년 이상	42	36.8	
마을 만들기 사업 이외의 마을공동체 활동	있다	80	58.0	138
	없다	58	42.0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해 마을공동체 활동기간	1년 미만	65	48.1	135
	1년-3년 미만	42	31.1	
	3-5년 미만	7	5.2	
	5-7년 미만	10	7.4	
	7-10년 미만	8	5.9	
	10년 이상	3	2.2	
구 일치	일치	114	87.7	130
	불일치	16	12.3	
동 일치	일치	91	74.0	123
	불일치	32	26.0	

(2)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

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알게 된 통로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2개의 복수응답), 지역주민과 이웃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26.3%)이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관련 중간지원기관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19.2%), 관공서(16.7%) 순으로 나타남. 즉 이웃 및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 알리는 중요한 통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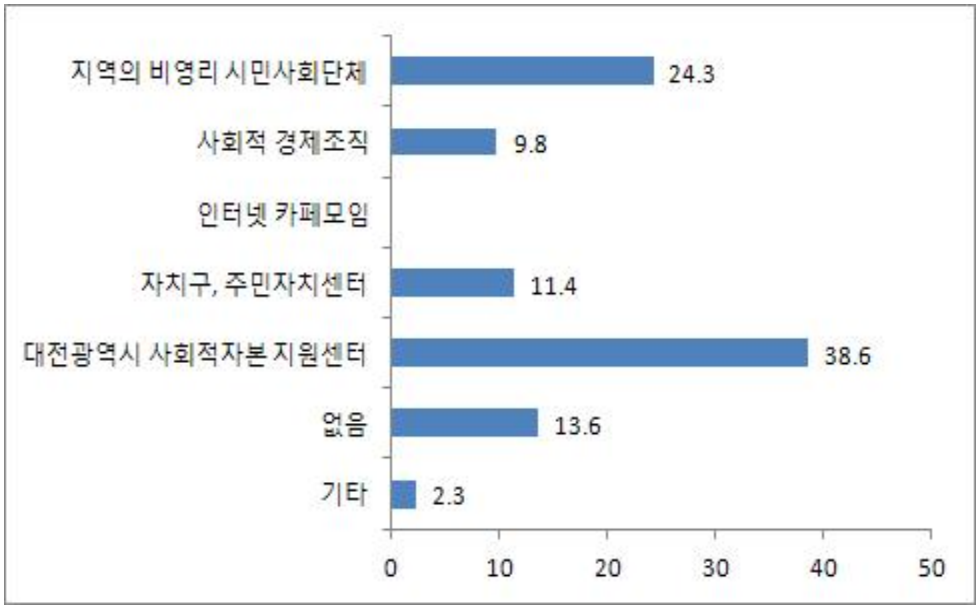


<그림4. 13>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알게 된 통로
(단위: %, N=240)

- '마을만들기 모임이 출발하는데 주요하게 도움을 준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하는 질문에 대해,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기관인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센터(38.6%)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즉 센터는 모임에 필요한 행정, 교육 지원은 물론 신규 마을모임을 발굴하는 역할

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표4. 14> 참조)

- 그리고 지역의 비영리 시민·사회단체(24.3%)들 또한 마을 만들기 모임의 주요한 조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음. 마을만들기 모임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임의 결성 및 활동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요한 조력자 역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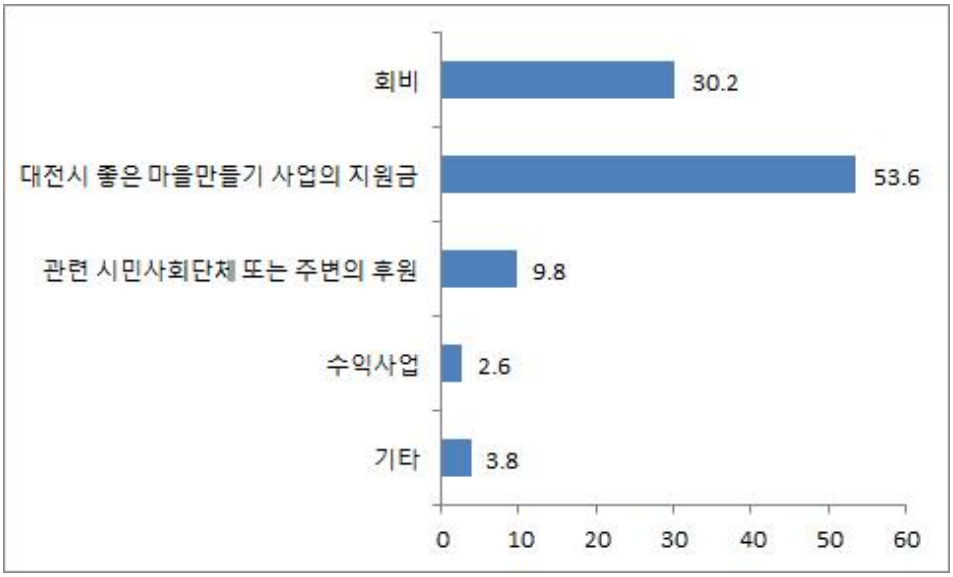
<그림4. 14> 마을만들기 모임에 도움을 준 단체 및 기관(단위: %, N=129)

<표4. 5>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참여

문항)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N=240)	빈도 (명)	비율 (%)
지역주민, 이웃을 통해	63	26.3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을 통해	21	8.8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페이스북,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30	12.5
대중매체(종이신문, 라디오, TV 등)를 통해	6	2.5
각 관공서(구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40	16.7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을 통해	12	5.0
관련 지원기관(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46	19.2
시민·사회단체(NGO, 교육·복지·문화 관련 단체 등)	19	7.9
기타	3	1.3
문항) 마을만들기 모임이 출발하는 데 도움을 준 단체 (N=128)	**빈도(명)**	**비율(%)**
지역의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32	24.3
사회적경제조직	13	9.8
인터넷 카페모임	-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15	11.4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51	38.6
공공복지 교육 문화 관련 단체	12	9.1
없음	18	13.6
기타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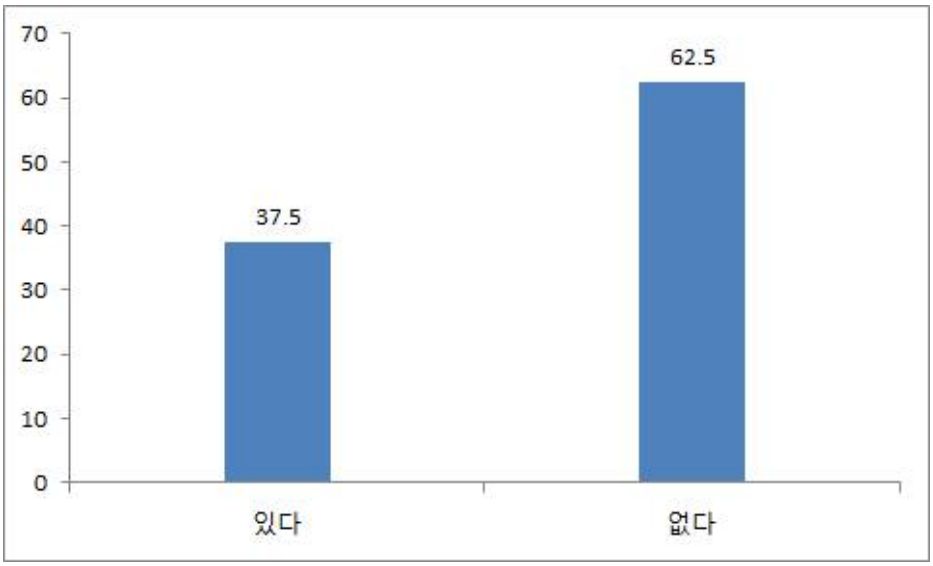
나. 마을만들기 모임의 재정

- ‘마을만들기 모임에 필요한 재정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2개 복수응답), 대전시 사업지원금(53.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회비(30.2%)로 충당한다는 응답이 높음. 즉 사업지원금과 회비가 재정을 충원하는 핵심적 방식임



<그림4. 15> 마을만들기 재정 충원 방식(단위: %, N=235, 복수응답)

- ‘마을만들기 모임의 정기적인 회비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62.5%)라는 응답이 ‘있다’(37.5%)보다 25%p 높음. 회비는 최고 3만원에서 최소 5천원이었으며, 평균 13,900원을 걷고 있음. 이는 통상적으로 월 만원 회비를 걷고 있는 시민단체보다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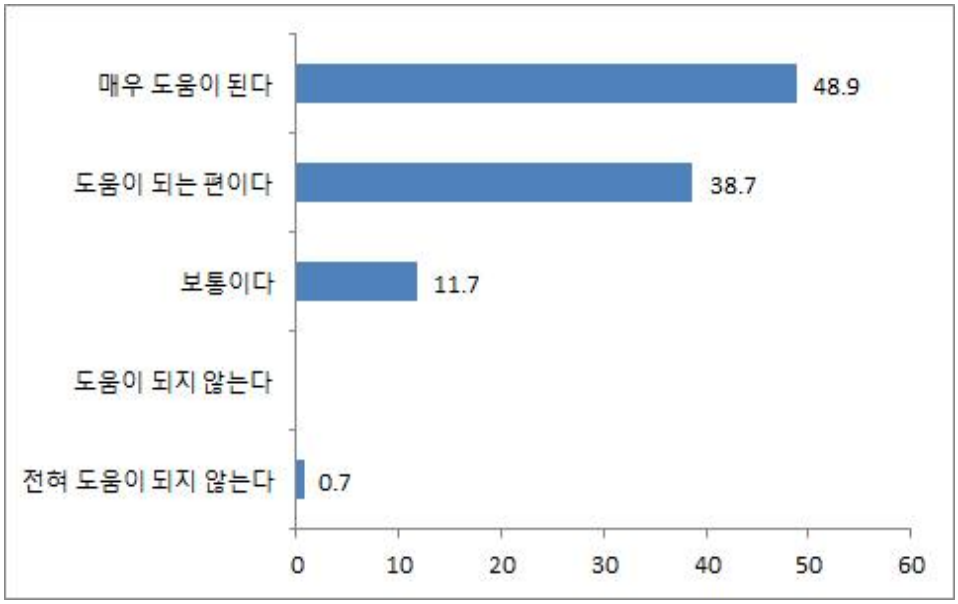
<그림4. 16> 마을만들기 모임 회비 납부여부(단위: %, N=128)

<표4. 6> 마을만들기 모임의 재정

마을만들기 운영비 등 재정 충원(N=235)	빈도(명)	비율(%)
회비	71	30.2
대전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금	126	53.6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주변의 후원	23	9.8
수익사업	6	2.6
기타	9	3.8
마을만들기 모임의 회비여부(N=128)	**빈도(명)**	**비율(%)**
있다	48	37.5
없다	80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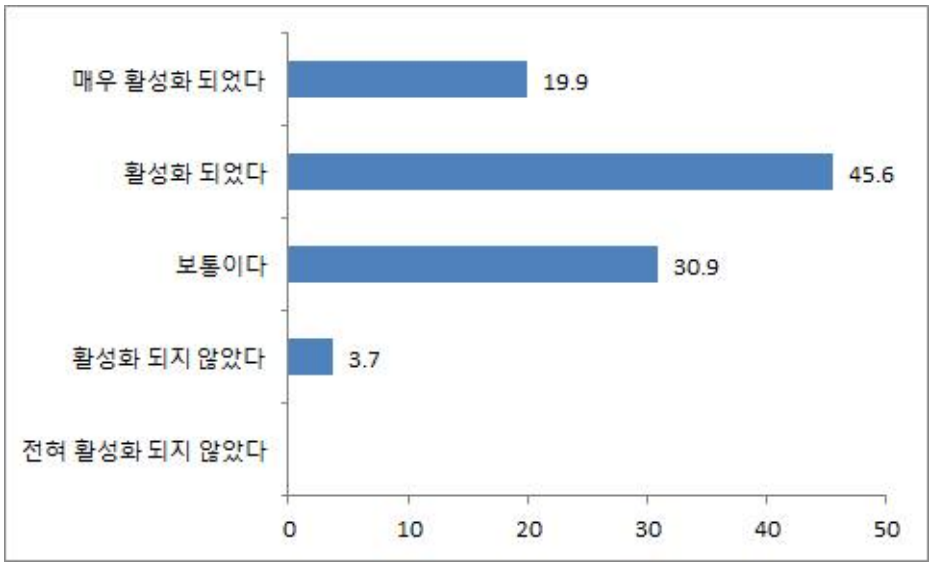
다. 마을만들기 모임의 활성화 정도와 영향

- '대전시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귀하의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87.8%)이 월등하게 높음. 즉 대전시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마을모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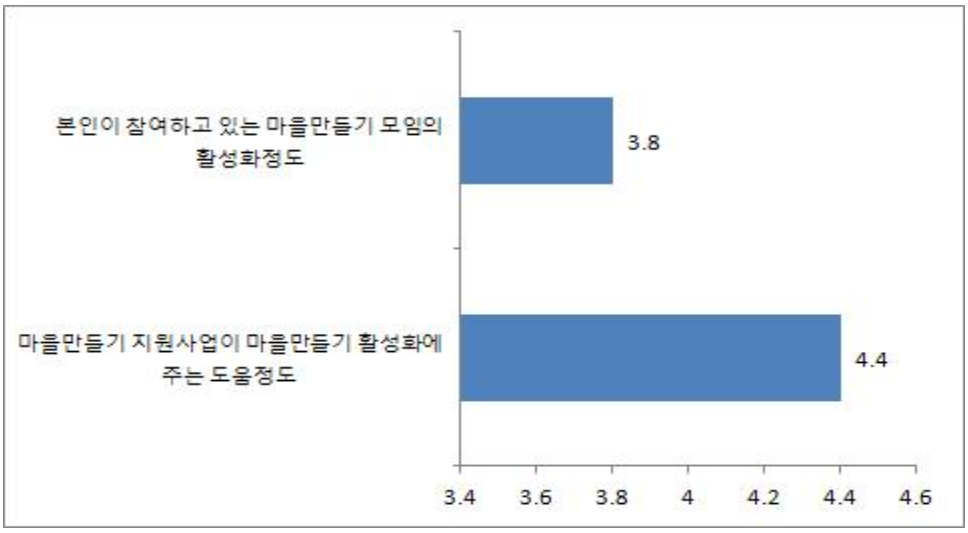
<그림4. 17> 대전시 지원의 도움정도(단위: %, N=137)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모임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다(65.5%)는 응답이 보통이다(30.9%) 혹은 그렇지 않다(3.7%)는 응답보다 월등하게 높음. 따라서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모임은 일정 수준 활성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4. 18> 마을만들기 모임의 활성화 정도(단위: %, N=136)

- 평균값을 통해서도 대전시의 사업 지원이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큰 도움(4.4)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최고점 5점). 그리고 활성화 정도 또한 양호(3.8)한 편임



<그림4. 19> 대전시 지원의 도움정도 및 마을모임 활성화 평균값

<표4. 7> 대전시의 도움정도 및 마을모임의 활성화 정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움정도(N=137)	빈도(명)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0.7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0
보통이다	16	11.7
도움이 되는 편이다	53	38.7
매우 도움이 된다	67	48.9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모임의 활성화 정도(N=136)	**빈도(명)**	**비율(%)**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	0	0.0
활성화 되지 않았다	5	3.7
보통이다	42	30.9
활성화 되었다	62	45.6
매우 활성화 되었다	27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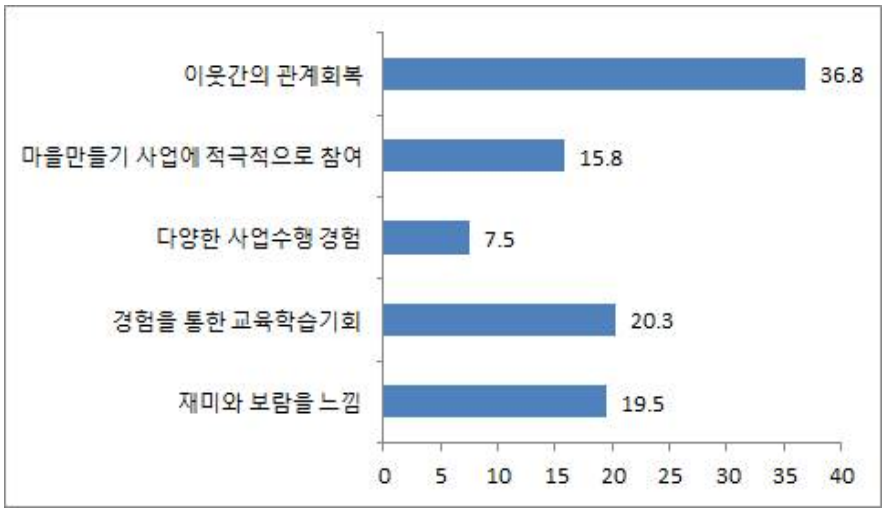
- 마을모임 단계별로 모임의 활성화 정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독립표본t-test), 해보자 이상 단계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이 모이자 단계에 참여하는 응답자보다 평균값이 더 높음. 즉 활동기간이 길수록 마을모임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음

<표4. 8> 마을모임 단계별 활성화 정도

마을모임 단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모이자	76	3.68	0.786
해보자 이상	58	3.98	0.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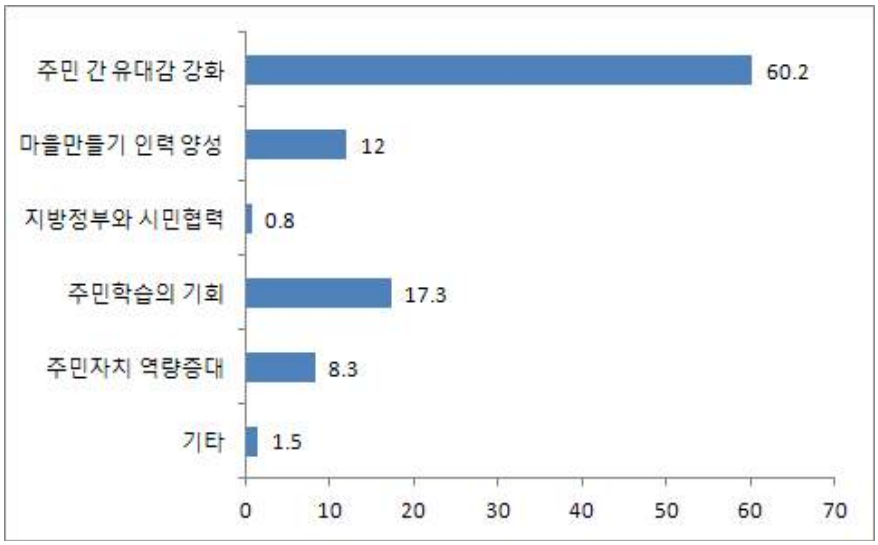
t값=-2.629, df=118.960, p<0.01

- '마을만들기 참여로 무엇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 수준에서는 이웃간의 관계회복(36.8%), 경험을 통한 교육학습기회(20.3%), 재미와 보람(1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옴(<그림 4. 20> 참조)



<그림4. 20> 마을만들기 활동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단위: %, N=133)

-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주민 간 유대감 강화(60.2%), 주민학습기회(1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옴. 즉 마을만들기 활동은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주민관계 개선, 학습기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4. 21> 참조)



<그림4. 21> 마을만들기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단위: %, N=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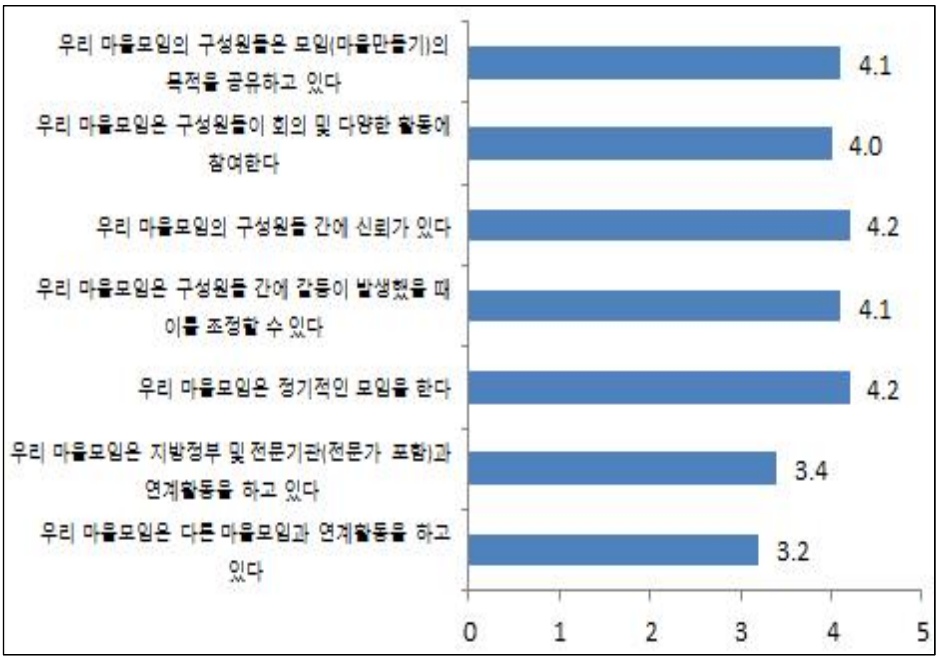
<표4. 9> 마을만들기 활동이 개인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마을만들기 활동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N=133)	빈도(명)	비율(%)
이웃간의 관계회복	49	36.8
마을만들기 사업에 저극적으로 참여	21	15.8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	10	7.5
경험을 통한 교육 학습기회	27	20.3
재미와 보람을 느낌	26	19.5
기타	0.0	0.0
마을만들기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N=133)	**빈도(명)**	**비율(%)**
주민 간 유대감 강화	80	60.2
마을만들기 인력 양성	16	12.0
지방정부와 시민협력	1	0.8
주민학습의 기회	23	17.3
주민자치 역량증대	11	8.3
기타	2	1.5

라.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과 어려움

-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복수의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옴(<표4. 22> 참조). 참여하는 주민들은 모임의 목적을 잘 공유(4.1)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신뢰(4.2), 갈등조정 능력(4.1)도 높게 나옴(최고점 5점)

- 하지만 전문기관과 전문가(3.4) 그리고 다른 마을모임과의 연계성(3.2)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즉 지역 내 정보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4. 22>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상태(단위: %, N=134~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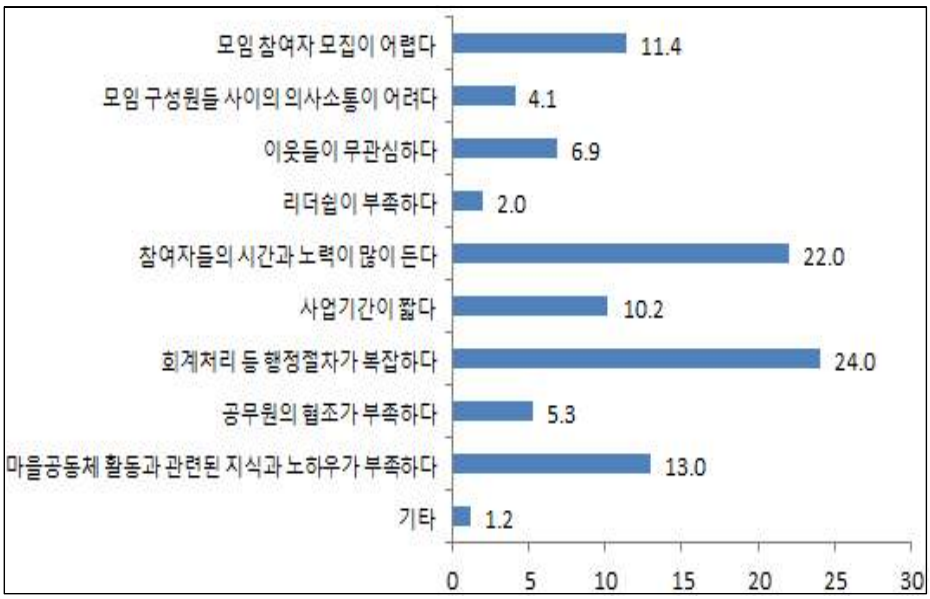
<표4. 10>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상황

(단위 : 명, %)

설문항목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럼	매우 그럼
우리 마을모임의 구성원들은 모임(마을만들기)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N=137)	0 (0.0)	1 (0.4)	14 (10.2)	88 (64.2)	34 (24.8)
우리 마을모임은 구성원들의 회의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N=138)	0 (0.0)	3 (2.2)	21 (15.2)	85 (61.6)	29 (21.0)
우리 마을모임의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있다(N=138)	0 (0.0)	_	8 (5.8)	85 (61.6)	45 (32.6)
우리 마을모임은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다(N=137)	0 (0.0)	2 (1.5)	14 (10.2)	94 (68.6)	27 (19.7)
우리 마을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 (N=138)	0 (0.0)	3 (2.2)	19 (13.8)	72 (52.2)	44 (31.9)
우리 마을모임은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기관(전문가 포함)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N=135)	1 (0.7)	24 (17.8)	42 (31.1)	52 (38.5)	16 (11.9)
우리 마을모임은 다른 마을모임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N=134)	2 (1.5)	33 (24.6)	39 (29.1)	48 (35.8)	12 (9.0)

<표4. 11> 마을만들기 활동 중에 만난 어려움

설문항목	빈도(명)	비율(%)
모임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	28	11.4
모임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10	4.1
이웃들이 무관심하다	17	6.9
리더쉽이 부족하다	5	2.0
참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54	22.0
사업기간이 짧다	25	10.2
회계처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59	24.0
공무원의 협조가 부족하다	13	5.3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하다	32	13.0
기타	3	1.2



<그림4. 23> 마을만들기 활동 중 어려움(단위: %, N=248)

- '마을만들기 활동 중에 만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2개의 복수응답), 회계처리 등의 행정절차가 복잡하다(24.0%), 참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24.0%)는 응답이 높음. 즉

복잡한 행정 처리로 인해 참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그 다음으로는 지식과 노하우의 부족(13.0%), 새로운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11.4%), 짧은 사업기간(10.2%) 순으로 높음

<표4. 12> 마을모임 단계에 따른 어려움

(단위: 명, %)

설문항목	모이자	해보자 이상
모임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	15(20.0)	11(19.0)
모임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8(10.7)	2(3.4)
이웃들이 무관심하다	10(13.3)	7(12.1)
리더쉽이 부족하다	3(4.0)	2(3.4)
참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25(33.3)	29(50.0)
사업기간이 짧다	19(25.3)	5(8.6)
회계처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30(40.0)	28(48.3)
공무원의 협조가 부족하다	6(8.0)	5(8.6)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하다	17(22.7)	15(25.9)
기타	1(1.3)	2(3.4)
합계	7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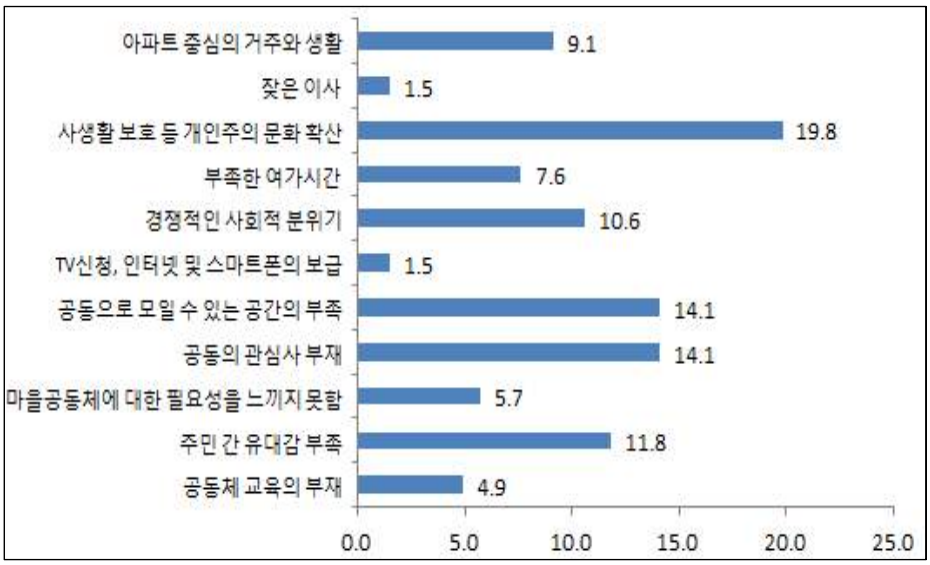
- 마을모임 단계에 따른 어려움을 보면(2개의 복수응답), 모이자 단계에서는 행정절차의 복잡함(40.0%), 참여자의 시간과 노력(33.3), 짧은 사업기간에 어려움(25.3%) 등 순으로 호소했음. 해보자 이상의 단계에서도 참여자의 시간과 노력(50.0), 복잡한 행정절차(48.3)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짧은 사업기간에 대한 불만(8.6%)은 다소 낮았음

마. 마을공동체 약화 원인과 지원방안

- '대전시의 마을공동체가 약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2개의 복수응답), 개인주의 문화 확산(19.8%)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공동의 공간(14.1%), 공동의 관심부족(14.1%), 주민간의 유대감 부족(11.8%), 경쟁적인 사회분위기(10.6%), 아파트 중심의 거주와 생활(9.1%) 순으로 높게 나옴. 반면에 잦은 이사는 아주 낮게 나옴



<그림4. 24> 대전지역 마을공동체 약화 원인(단위: %, N=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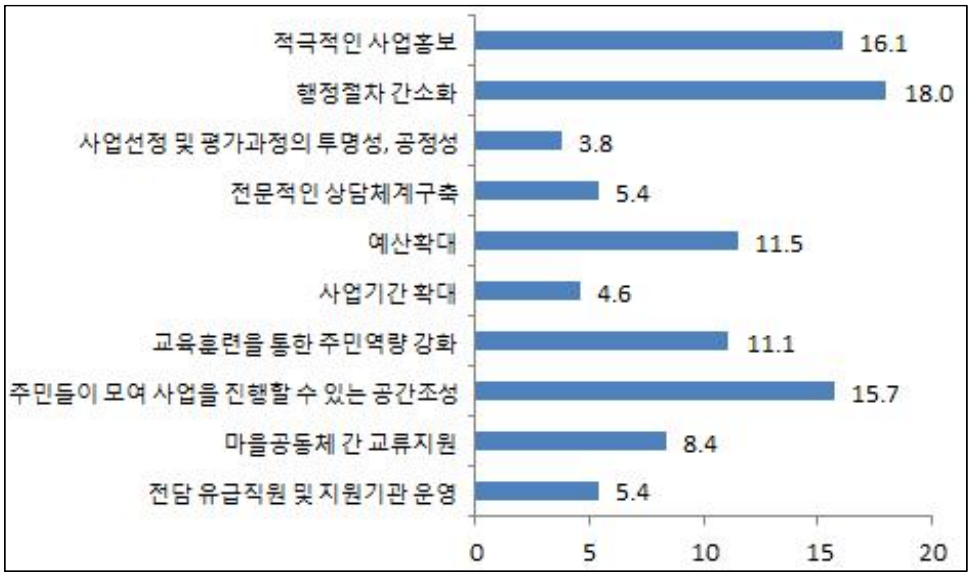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2개의 복수응답), 행정절차 간소화(18.0%), 적극적인 사업홍보(16.1%), 공간조성(15.7%), 예산확대(11.5%), 주민역량강화교육(11.1%)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사업기간 확대(4.6%), 사업선정 및 평가의 투명성(3.8%), 전문가 상담체계구축(5.4%)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표4. 13> 대전지역 마을공동체 약화 원인

(단위: 명, %)

설문항목	빈도(명)	비율(%)
아파트 중심의 거주와 생활	24	9.1
잦은 이사	4	1.5
사생활 보호 등 개인주의 문화 확산	52	19.8
부족한 여가시간	20	7.6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	28	10.6
TV신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	4	1.5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의 부족	35	14.1
공동의 관심사 부재	37	14.1
마을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5	5.7
주민 간 유대감 부족	31	11.8
공동체 교육의 부재	13	4.9
기타	0.0	0.0



<그림4. 25>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단위: %, N=261)

<표4. 14>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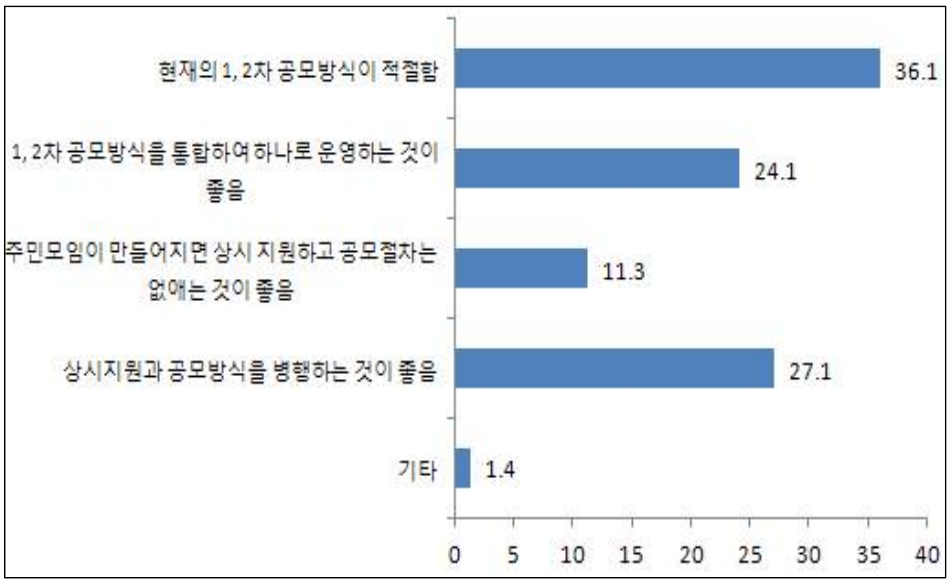
설문항목	빈도(명)	비율(%)
적극적인 사업홍보	42	16.1
행정절차 간소화	47	18.0
사업선정 및 평가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10	3.8
전문적인 상담체계 구축	14	5.4
예산확대	30	11.5
사업기간 확대	12	4.6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29	11.1
주민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	41	15.7
마을공동체 간 교류지원	22	8.4
전담 유급직원 및 지원기관 운영	14	5.4
기타	0	0.0

- 마을모임 단계별에 따른 지원방안을 보면, 모이자 단계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36.4), 적극적인 사업홍보지원(32.5%), 공간조성(28.6%) 순으로 높게 나옴. 해보자 이상의 단계에서도 공간조성(31.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표4. 15> 마을모임 단계에 따른 지원방안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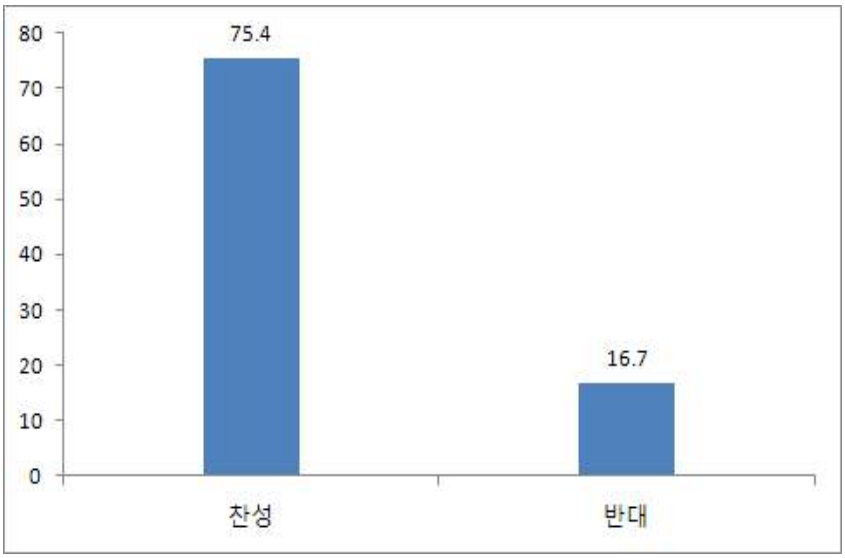
설문항목	모이자	해보자 이상
적극적인 사업홍보	25(32.5)	17(29.8)
행정절차 간소화	28(36.4)	17(29.8)
사업선정 및 평가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5(6.5)	4(7.0)
전문적인 상담체계 구축	8(10.4)	6(10.5)
예산확대	20(26.0)	9(15.8)
사업기간 확대	8(10.4)	4(7.0)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15(19.5)	14(24.6)
주민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	22(28.6)	18(31.6)
마을공동체 간 교류지원	12(15.6)	10(17.5)
전담 유급직원 및 지원기관 운영	4(5.2)	9(15.8)
합계	77	57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방식(년 2회 정기공모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행 방식에 대한 지지(36.1%)가 가장 높았음. 하지만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24.1%), 상시지원과 공모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27.1%)을 합할 경우 현재의 공모방식보다 15.1%p 더 높음



<그림4. 26>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방식에 대한 의견(단위: %, N=133)

- 마을만들기 지원방식을 '주민공동체 형성'과 '주민공동체의 사업 지원'으로 구분한 후, 주민공동체 형성 사업은 '상시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미 형성된 주민공동체의 사업 지원은 '공모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음. 그 결과 찬성(75.4%)이 반대(16.7%)보다 58.7%p 높음



<그림4. 27> 상시지원과 공모방식으로 구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단위: %, N=127)

<표4. 16>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방식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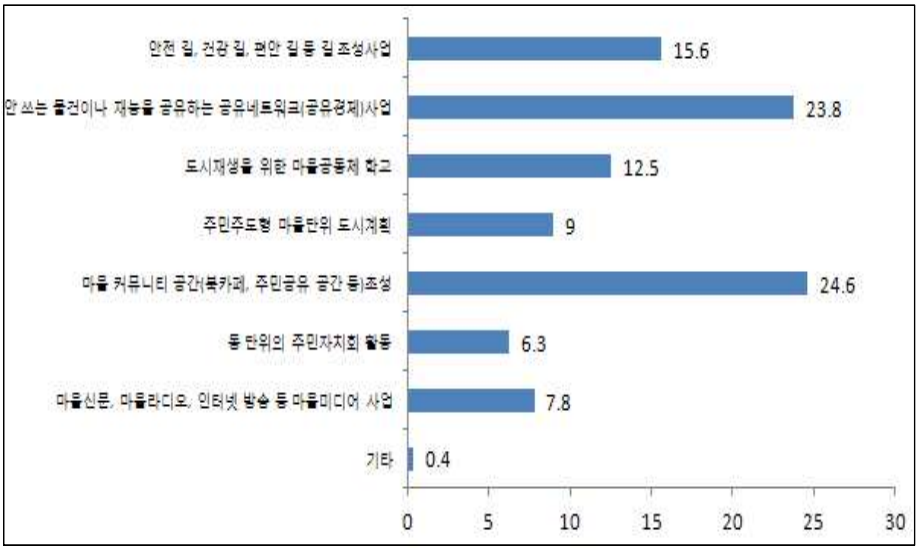
공모방식 변경(N=133)	빈도(명)	비율(%)
현재의 1, 2차 공모방식이 적절하다	48	36.1
1, 2차 공모방식을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32	24.1
주민모임이 만들어지면 상시 지원하고 공모절차는 없애는 것이 좋다	15	11.3
상시지원과 공모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36	27.1
기타	2	1.4

지원 내용에 따라 상시지원과 공모방식의 혼합(N=127)	빈도(명)	비율(%)
찬성	104	75.4
반대	23	16.7

- ‘2014년 새롭게 당선된 대전시장이 제안한 마을공동체 활동 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2개의 복수응답), 마을커뮤니티 공간 확보(24.6%), 공유경제(23.8%), 길 조성사업(15.6%), 도

시재생(12.5%) 등의 순으로 높음

- 앞선 문항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대해 관심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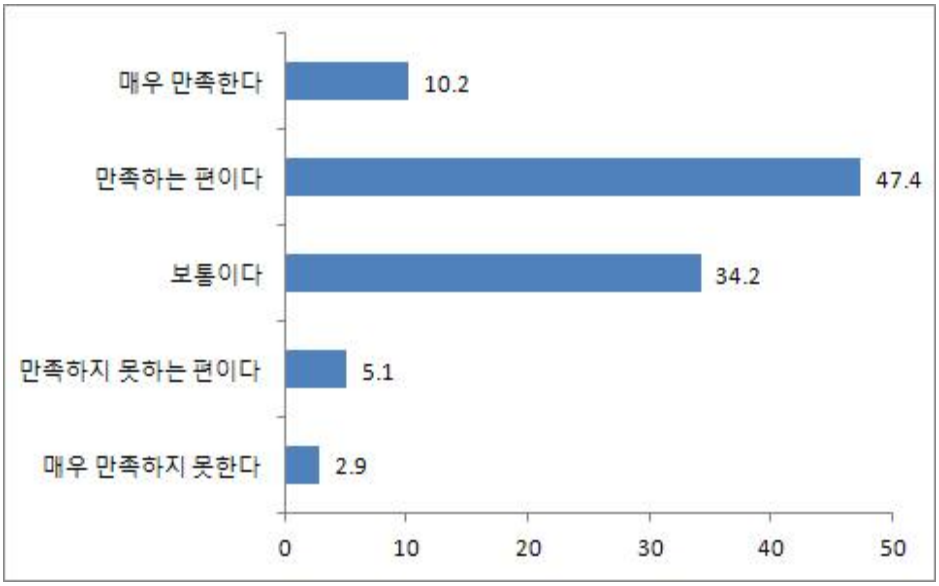
<그림4. 28> 대전시장이 제안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의견
(단위: %, N=256)

<표4. 17> 대전시장이 제안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빈도(명)	비율(%)
안심 길, 건강 길, 편안 길 등 길 조성사업	40	15.6
안 쓰는 물건이나 재능을 공유하는 공유네트워크(공유경제)사업	61	23.8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학교	32	12.5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도시계획	23	9.0
마을 커뮤니티 공간(북카페, 주민공유 공간 등) 조성	63	24.6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활동	16	6.3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마을미디어 사업	20	7.8
기타	1	0.4

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57.6%)이 그렇지 않는 응답(8.0%)보다 49.6%p 더 높음. 평균값 또한 3.7로 양호한 수준임(최고점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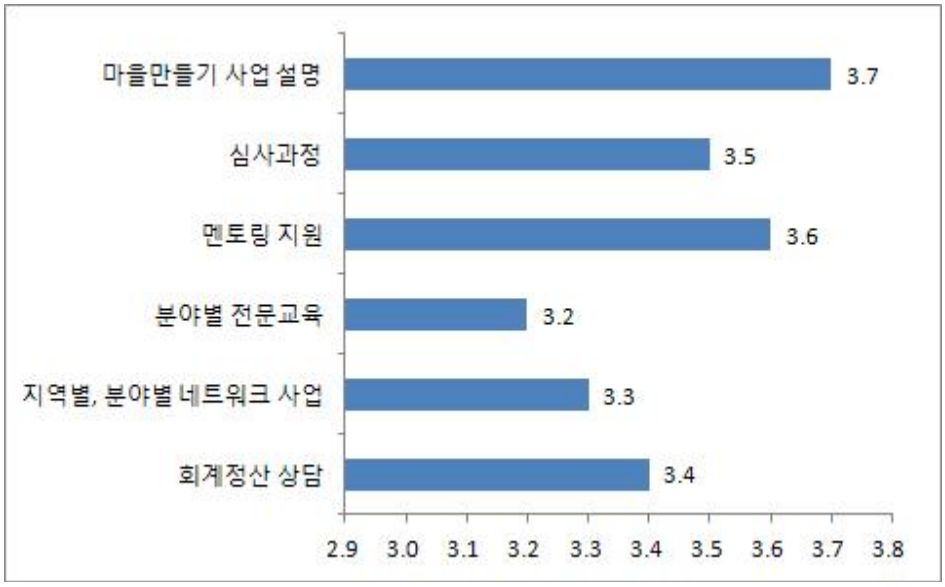


<그림4. 29>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단위: %, N=137)

<표4. 18>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설문항목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4	2.9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7	5.1
보통이다	47	34.3
만족하는 편이다	65	47.4
매우 만족한다	14	10.2

- 세부분야별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사업설명(3.7), 멘토링 지원(3.6), 심사과정(3.6), 분야별 전문교육(3.2) 네트워크 사업(3.3)에 대한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최고점 5점)



<그림4. 30>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세부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단위: %, N=137)

<표4. 19>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세부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항목	전혀 만족 못함	만족 못함	보통	만족	매우 만족	N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	4 (2.9)	7 (5.1)	47 (34.3)	65 (47.4)	14 (10.2)	138
심사과정	1 (0.7)	6 (4.5)	37 (26.8)	77 (55.8)	13 (9.4)	134
멘토링 지원	3 (2.2)	7 (5.2)	51 (38.1)	63 (47.0)	10 (7.5)	134
분야별 전문교육	2 (1.5)	8 (6.0)	49 (36.6)	63 (47.0)	12 (9.0)	134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사업	5 (3.7)	11 (8.2)	71 (53.0)	43 (32.1)	4 (4.0)	134
회계정산 상담	4 (3.0)	13 (9.7)	55 (41.0)	56 (41.8)	6 (4.5)	134

3) 사례조사 결과분석

<표4. 20> 사례조사 대상 목록

연번	구분	조사일자	구	모임형태	사업유형
1	2013-A-2	2014.8.29	동구	주민	생활갈등조정
2	2013-B-11	2014.8.22	동구	주민	교육
3	2013-B-43	2014.8.19	동구	주민	문화역사
4	2013-B-131	2014.8.26	대덕	주민	환경생태
5	2013-B-65	2014.8.20	서구	비영리	환경생태
6	2013-C-117	2014.8.28	유성	주민	교육
7	2013-C-46	2014.9.4	중구	주민	마을미디어
8	2014-A-77	2014.8.30	서구	주민	환경생태
9	2014-A-140	2014.8.20	대덕	주민	교육
10	2014-A-78	2014.8.26	서구	비영리	복지
11	2014-B-98	2014.8.21	유성	주민	문화역사
12	2014-B-116	2014.9.5	유성	주민	마을미디어

(1) 2013-A-2(남대전이편한세상입주자대표회의)

가. 일반 현황

- 마을모임의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의 유형 : 생활정비·갈등조정형
- 마을모임의 형성 시기 : 2011년 9월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2년
- 마을모임 참여인원 : 11명
- 활동 지역 : 동구 낭월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2011년 9월 아파트 단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주민조직은 형성되었으나, 주민 간 화합도모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른 아파트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여 2013년부터 시작함

②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참여 동기

- 아나바다 화합장터를 기획하고 있던 중 자치단체에서 보낸 지원사업에 관한 공문을 통해 지원내용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됨

-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성구 관평뜰 축제와 같은 다른 아파트 단지의 사례도 견학하면서 참고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아나바다 주민장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

성 대표들을 중심으로 운영함

- 아나바다 주민장터 준비는 5월 정도에 시작해서 9~10월 중 진행하고 외부 업체의 참여는 배제한 채 주민들만 참여함

- 행사에 필요한 장소 설치 등은 주민들이 봉사단을 구성하여 진행을 돕고 공연도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짐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가장 큰 성과는 주민 간 유대감이 커졌다는 것임. 그리고 장터 자원봉사를 계기로 모였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부녀회가 만들어지는 등 주민조직 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함

- 주민 간 유대강화를 위해 동구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아파트, 의제21에서 진행하는 그린스타트에도 지원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

- 처음 개최한 2013년의 경우 준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또한 아파트 주민들만이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참여도 있었음

② 이후 계획

-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확대도 고려하고 있음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2013년의 경우 동구청으로부터 회계 등 행정 처리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중간 지원업무가 이관된 22014년에는 행정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공동체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중략)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와서 자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를 들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2) 2013-B-11(무지개놀이밥)

가. 일반 현황

- 마을모임의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의 유형 : 교육형
- 마을모임의 형성 시기 : 약 4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2년
- 마을모임 참여인원 : 13명
- 활동 지역 : 동구 천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주부 네 명이 2년 정도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에 있어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공동체 놀이와 학습 품앗이 등을 통해 창의성과 자발성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지들이 있었음

- 어른들이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을모임 생활을 익히도록 하고자 함

“교육관이라고 해야 하나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요즘에 엄마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모여 있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도와주고, 내 아이가 어려울 때 여기 엄마가 도와주고 지금의 말로 마을모임적인, 서로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다 보면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사교육은 시키지 말자. 얘들은 얘들답게 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컸었던 거죠. 그래서 모임을 갖기 전부터도 몇몇 엄마들이 얘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그런 엄마들이 주축이 된 거죠. 노는 아이들과 노는 엄마들 그러면서 좀 더 모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사이좋게 지내라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겠다, 저희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모의 삶 전체가 아이들 교육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면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그러기 위해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모 책모임이 큰 원동력인거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잘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알고 교육한다는 게 뭔지, 같이 배우고 같이 지향점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내에서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게시해서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②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참여 동기

- 대표를 맡고 있는 김ㅇㅇ이 서울에 거주할 당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고 대전으로 이주한 후에도 대전에서도 그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

- 그러던 중 아파트에 게시된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독서모임을 갖던 지인들과 평소 아파트 놀이터에서 알게 된 다른 아이 엄마들과 함께 상의하여 2013년에 처음으로 지원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기모임과 오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진행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회원 독서모임을 진행함. 정기 모임 외에도 수시로 모여 의견을 나누는 회원 활동을 진행함

-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 13명 있음. 정회원과 달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거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준회원이 있음. 정회원으로의 입회는 매년 연말 일정의 절차를 통해 받고 있음. 준회원의 수는 유동적이고 참여자를 늘이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 모임의 운영을 위해 정회원의 경우 매월 3만원의 회부를 납부하고 있음. 이중 1만원은 독서모임 책 구입비로 사용하고 2만원은 아이들 놀이 활동비로 지출함

- 모임의 체계는 대표와 회계담당자가 있고 그 외에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역할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음

- 모임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부모책모임,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는 수요놀이를 비롯해 숲 체험 등 다양한 비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찾아가는 소통방, 벼룩시장이나 노인정 방문 행사와 같은 주민단합행사, 주민 대상 강좌, 그리고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이중 찾아가는 소통방은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회원들이 주민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모임운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 화합을 이루기 위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2회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가 없는 상황에서 부녀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을 고민하고 있기도 함

- 모임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비록 모임 차원은 아니지만 모임 참여자들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에 참관을 하기도 함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대전시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모임의 공식성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었고 모임의 규모와 활동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모임이 기반을 두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문화적 활동을 통해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음

- 마을모임에서 추진한 아파트 내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밭도서관으로부터 2014년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도서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컴퓨터 등 기자재를 지원받기도 함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처음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2013년의 경우 회계처리 등 행정 관련 부분이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2년차부터는 전년도의 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음. 은행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회계담당자의 역량도 도움이 되었음

-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는 일차년도에 비해 일부 간소화되었으나 모임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강사료 지출 등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한 첨부서류가 많고 지출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운 지점이 있음

"교통비 지급을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간 금액을 책정해서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 (중략) 원래는 책정을 했어요. 한사람이 자가용이 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교통비로 지원을 하자 근데 올해 바뀐 거예요. 아무리 몇 번을 해보자 해보자해도 힘

든 거예요. 교통비는 단체로 워크샵이나 강연 들으러 갈 때 택시는 탈 수 있잖아요. 3천원 4천원할 때는 안 쓰고 5천원 넘을 때나 이렇게. 활동비 월 얼마라든지 편하게 책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안하신거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편할 것 같아요."

-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간 갈등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매월 늦은 밤 시간에 진행하는 술 모임 형식의 "심화회의"나 마음이 통하는 회원끼리 아이들 교육을 포함해 사적인 고민까지 서로 대화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함

-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약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이후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져 모임의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마을모임의 활동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외적으로 주민 대표체의 위상에 관해 일부 입주자대표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기도 함. 다시 말해, 모임의 활동 범위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를 대표하는 조직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무지개놀이밥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불만 표출이 있어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점임

③ 이후 계획

- 대전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현재의 모임을 튼튼하게 지속하는 조건에서 아파트 내 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공동사업도 고민하고 있음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지원을 할 때보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이관된 이후 회의진행 방법이나 모임 운영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음

- 하지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근무인원이 너무 적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편안하게 많은 질문이나 요청을 할 수 없음

- 멘토지원의 경우 도움이 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상담이나 다른 마을 모임과의 정보교류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방식의 변화와 참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주민들끼리도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제가 지금 주 멘토는 아니지만 교육부 멘토 중 한사람이거든요. 근데 열악해요. 작년에는 더했거든요. (중략) 아마 또 바뀔 거 같아요. 사회적 자본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분들이 (중략) 멘토로 있기에는 짬내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고 여기에 전념하시기엔 힘들고 좋은 마을만들기 안에서 활동가를 키워서 그분들이 멘토가 되면 그분들이 경험해 본거잖아요. (중략) 그래서 좀 주민들 중에서 (중략) 양성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모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멘토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먼저 제시를 해주면 좋겠음

-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람

- 참여 모임들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의 한 수단으로 보거나 양적인 변화에 중심을 두지 않고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기길 바람

-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큰 금액을 소수의 모임에 지원하기보다는 다수의 모임에 지원하여 작은 모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 2013-B-43(중촌마을문화축제 기획단)

가. 일반 현황

- 마을모임의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의 유형 : 문화역사형
- 마을모임 형성 시기 : 8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2년
- 마을모임 참여인원 : 매년 유동적
- 활동 지역 : 중구 중촌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마을축제는 2007년에 중촌동에 위치한 '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에서 진행한 '책잔치'에서 출발함.

- '책잔치'에 주민들과 주변의 각종 사설 학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규모가 확대됨.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2010년에 축제추진단을 구성함

②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참여 동기

-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의 규모와 재정확대를 위해 지원을 하게 됨

- 좋은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는 지원센터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기도 하고 행정기관의 공문을 통해 취득하기도 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추진단은 상설로 운영하지 않고 매년 8월경부터 3~4회 준비회의를 하고 10월에 축제를 개최함. 축제 후에는 평가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해 진행에 참고함

-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는 않고 '마을숲'이 센터의 역할을 하고 참가 단체, 주민, 혹은 마을 내 가게 등 다양한 참가주체들이 역할을 맡아서 진행함. 2013년부터는 홍보디자인팀, 부스 운영팀, 무대공연팀, 그리고 벼룩시장팀으로 구성해서 진행함

- 2013년의 경우 총 15개 행사부스를 설치하여 진행했으며 1,000명 이상의 주민참여가 있었음

- 행사비용은 2012년까지는 참가주체들의 참가비와 마을 내 약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고 2013년부터는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금이 추가되었음

-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하고, 인접한 다른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모임이나 단체들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마을모임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마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행사를 통해 주민 간 그리고 세대 간 소통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함

"시작할 때만 해도 봄에 신학기만 되면 몇 명씩 다 빠져나가고 이사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비하감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애향심 같은 게, 이런 거를 하게 되면서. 뭐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려하고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축제를 하게 되면서 세대 간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 아이들하고 거의 아이들을 주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세대들이 축제 참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축제 하다보면 되는 거예요. 안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된다 생각하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추진단 내부에서 갈등수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참여 주체들 중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의 참여방식에 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 예를 들어, 각종 사설 학원들 중 동일한 업종의 학원이 둘 이상 참여할 경우 약간의 경쟁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외적으로는 장소 사용과 장소명칭에 대해 해당 기관과의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홍보와 안정적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커져가는 행사규모에 비해 협소한 장소의 문제와 그 장소(명칭)사용에 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이 동네는 큰 공원이나 그런 게 없다보니까 ○○○○○ 아세요? 거기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옆 거기가 대전형무소 자리고 우리가 대전형무소를 기념하는 평화공원이라고 표지도 세우고 몇 년 전부터 불러서 모두 평화공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 제작년부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러니까 왜 거기를 평화공원이라고 부르냐고, 자유공원, 자유부지 어쨌든 자유자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데. 그거를 플랑

카드를 열다섯 개 정도 동네에 걸거든요. (중략) 거기다 그걸 쓰고는 우리한테 못 사용한다고, 제작년에는 그냥 하자 그랬는데 작년에는 거기에다 막 지웠어요, 종이로. 왜냐면 그 장소를 써야하는데 거기 관리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걸 무시했다가는 얼굴 붉히는 일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최대의 문제는 그거에요 장소에 관한 것."

- 내부 실무역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문제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타나는 효과와 대조적으로 대전시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다를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돈 문제가 양면성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쓸 돈이 없으니까 무거운 옛날 천막을 몸으로 가서 빌려 오고 몸으로 다 때웠거든요.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업체 하나 불러서 하면 다 되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될 거냐고요? (중략) 축제는 약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은 점점 높아져, 처음에 우리가 몸으로 때웠을 때는 힘들어도 좋다 이랬는데 한 번 돈 맛을 알아서 깔끔하게 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허접한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뭐냐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요."

- 대전시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음. 그리고 모임의 공식성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어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도움을 받기가 용이해졌음

③ 이후 계획

- 자체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속해 갈 것임

- 축제를 통해 마을이 활력을 찾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청년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임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멘토지원에 있어 좀 더 장기적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람

"저희가 아쉬운 거는 주민들이 아마추어적으로 해온 것은 8년 쯤 되었으니까 패턴도 있고, 70~80% 정도는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가고 20~30%는 우리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멘토를 제 생각에는 그런 이론가들 외에 실재 젊은 청년 문화 작업자들이나 차라리 마을 축제로 선정된 데는 그런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줘서 1년 동안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동네에 설치도 하고, 미술파트는 그렇고. 중촌동에 평화공원이 있다, 일제 때 그랬고 좌우익이 서로를 학살했고, 마을의 이런 것을 살려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전문가도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 마을모임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행사진행에 필요한 음향장비나 천막 등 장비를 대여해 주는 것도 공유경제 차원에서 필요함

-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이후 현수막 게시와 같은 홍보 측면에서 도움을 받음.

- 마을 축제에 관해 부임해 오는 동사무소 동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준을 보이는 것이 현실임. 마을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방송국이나 기업들에서 마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길 바람

-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람

- 문화적으로 마을에 접근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아쉬움

"올해도 축제 뭐 안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일회성이라서요. 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단편적인 것 같아요. (중략) 평가된 내용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을 주민 간의) 관계가 형성된 단계라면 이 관계가 마을에서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중략) 그런 기회를 주

도록 해서 그 문화적인 마인드를 높게 한다던가, 아니면 인근 마을하고 같이 한다던가. 그리고 축제는 하루에 끝나지만 준비하는 기간은 만만치 않아요. 그게 왜 일회성이라고 하는지 저는 불쾌하거든요. 문화가 갖는 힘이 있어요. (중략) 마을 축제는 평소에 그렇게 개별 개별로 이뤄지던 게 마을 안에서 하나의 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동네마다 이런 게 활성화 되도록 하나의 문화파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정책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주민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모임에 필요한 현실적인 활동비가 책정되어야 함

(4) 2013-B-131(대덕교육희망네트워크)

가. 일반 현황

- 마을모임의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의 유형 : 환경생태형
- 마을모임 형성 시기 : 2013년 2월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2년
- 마을모임 참여인원 : 7명
- 활동 지역 : 대덕구 전역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대덕구 와동에 있는 또바기 어린이도서관, 법동 마루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비래동 꾸러기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 엄마들 모임을 해 오던 중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으로 모임을 만들게 되

었음

-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지역 학부모회 활동 관련 활동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기타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 등으로 관심이 발전되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대덕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됨

②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참여 동기

- 마을어린이도선관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원 관련 정보를 접했음

- 당초 계획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결정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2회의 정기모임을 가짐

- 대표, 총무, 그리고 운영위원 체계가 있으며 자체 회칙이 있으나 회비 문제를 결정하지 못함. 현재는 운영위원들만 회비를 납부함

-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교육, 주민네트워크 구성, 학교 학부모 모임과의 간담회 등

- 프로그램은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일본 원자력 문제, 그리고 먹을거리 등 학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함. 그리고 학교별 학부모회와의 간담회를 2회 진행함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지원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마을모임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어 학교나 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됨

-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교육문제에 비해 먹을거리에 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홍보의 한계가 있어서 강연 참가자를 조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교육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의 학교 급식과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음

"예를 들어 유치원 간식에 수입 산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동네가 조그만 하니깐 금방 알 수 있어요. 유치원 간식은 (중략) 조리하는 분이 그냥 가서 사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가서 간식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입 산을 지양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운영위원들 스스로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음

- 협동조합 등 다른 마을모임과 관내 학부모 모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주민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대덕구청과 대덕구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기도 함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어려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려 할 때 승인절차가 까다롭다고 받아들이고 있음. 특히 활동비와 같은 인건비 지출 역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해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아 사비로 지출하는 불편함이 있음

"일단 우리가 (사업계획을) 냈는데 하다가 이게 아닌 거 같을 때 내용이나 사업 형태를 바꿔야 하는데, 바꾸려고 하니깐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무슨 승인도 받아야 하는 거 같아요. 복잡하다 보니깐 안 바꾸고 그냥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게 필요하면 따로 (자체비용으로) 하고 그래요."

- 안정적인 공간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임

③ 이후 계획

- 당초 목적인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활동을 할 계획임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멘토지원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조언정도 수준이었음

- 각 학교의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청 지시사항 이외에의 사안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 대덕구청과 대덕구의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필요성 등 사업전반에 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이들 기관의 지속적인 논의 의지를 확인함

- 마을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좋은 모임에 대한 지원을 바람

"좋은 모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는 모임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인력도 지원해주고, 공간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그렇게 하면 단체 조직을 만들 네트워크를 만들 때도 좋을 거 같아요. (중략) 정확히 모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 2013-B-65(달팽이어린이도서관)

가. 일반 현황

- 마을모임 형태 : 비영리민간단체
- 마을모임 유형 : 환경생태
- 마을모임 형성시기 : 2013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2년
- 참여인원 : 9명
- 활동지역 : 서구 도마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어린이도서관 개관과정

- 대전시 서구 도마동은 서구의 둔산지구와 관저지구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단독주택위주의 오래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음

- 도마동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능동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이 없음

- 이에 자발적인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움직임이 주민들 주도하에 시작됨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반딧불터' 사업단을 통해 도마동 마을어린이 만들기 모임(2007년 8월)을 구성함.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 책 전시회를 열어 주민자치센터와 마을주민들에게 마을어린이 도서관 개관(2008년 4월)을 알림

- 마을도서관을 통해 마을주민에게는 문화생활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

공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함. 또한 마을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②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참여 동기

- 대전의 여러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활동하는 강사의 안내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알게 됨. 유사한 활동을 해온 다른 마을어린이도서관의 조언을 받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신청을 함.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3년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운영됨. 이러한 이유는 인건비를 지급할 만큼 재정이 풍족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도서관이 제공하는 공간, 여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기꺼이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음

"제가 도청이나 행사 때문에 다른 곳을 가면 자원 봉사를 하시는 분이 와서 도서관을 운영해주세요 (중략) 전부 무임금의 자원 봉사자예요. 글쎄요. 쉽게 자금 사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고 해도 어떻게 될 줄 모르니 저축을 해놔야 할 거 같아요. 또 저는 현재 임금이 없다고 해도 여기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계속 할 거 같아요."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이 회의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결정함. 현재 도서관 일반회원은 총 400여명으로 이중에서 70여명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정기후원회원임
- 주요 활동으로는 '숲과 놀아요', '책이랑 놀아요' 아나바다 벼룩시장이 있음. '숲과 놀아요'는 서구 지역 어린이도서관들이 함께하는 공동의 활동임. 주로 도마동, 변동, 갈마, 월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

족단위 생태탐사 프로그램으로 월평공원과 갑천 생태계 보전의 의미를 알림

- 숲 해설가를 초청하여 관련 워크숍을 진행함. 그리고 나뭇잎 천연 염색하기, 뱀의 눈으로 숲 걸어보기, 곤충의 눈으로 숲 바라보기, 확대경 이용하여 나뭇잎 보기, 나무도감 만들기, 물속 생태 관찰하기, 수질 측정하기 등의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책이랑 놀아요'는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이고, 바자회 및 아나바다 벼룩시장 매년 10월에 마을 공원에서 진행하는 마을축제임

-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마을주민과 청소년들을 폭 넓게 끌어 모으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소통이 증진됨

"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주로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봉사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주로 접해왔던 사람들이 해요. 그 밖의 외부 봉사자들은 학생들, 주로 중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요.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어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원 봉사하러 온 아이들은 서가 정리를 해요.

- 도서관은 매년 1회 개최하는 책 잔치를 통해 마을의 다른 주민과도 함께하려고 노력함

"처음 이곳은 벼룩시장, 먹을거리 행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하는 아이들의 기타 교육을 바탕으로 기타 공연과 체험 부스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규모도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행사를 하는 장소가 근처 놀이터인 용화어린이공원인데, 근처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거리 축제를 하면서 겸사겸사 음식도 어르신들에게 드리다 보니 효행사를 겸사해서 하는 것 같아요. 행사의 진행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3개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수 있었음.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만족도 또한 높음. 그리고 도서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에서 오는 피로감을 일정 부분 완화해줌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예산이 부족으로 인한 운영이 어려움지만, 더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아이들과 엄마들도 함께 모임을 떠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모임에서 일탈함

- 단,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업무 처리, 특히 회계업무가 너무 힘이 듦

"3개 도서관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다 보니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 뭔가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별 다른 교류가 없었어요. 다만 회의 때 관장님끼리 얼굴만 보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런 거를 하면서 얼굴을 보다 보니, 세미나를 할때나 어디서 만나도 서로 인사를 하고 그래요.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어떤 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장님들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이 생태체험을 하면서 자신도 힐링이 되고 참여하는 가족들도 힐링이 되었다고 해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힐링이 되고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하길 모두 원하시죠."

③ 이후 계획

- 향후 마을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어르신들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임.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멘토들의 지원과 조언이 생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줌. 하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참여로 실무적 부담이 높음.

(6) 2013-C-117(마실)

가. 공동체 현황

- 마을모임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 유형 : 교육
- 마을모임 형성시기 : 2012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2년
- 참여인원 : 11명
- 활동지역 : 유성구 전민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2012년 12월 경,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4명의 엄마들의 모임에서 시작함. 성적 중심의 교육보다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아이답게 키워보자는 품앗이 육아공동체를 지향함. 특히 우리의 전래놀이를 통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함

"엄마들이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모여서 요런 모임을 하고자 했는데 그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서로 하고 싶은 분야를 의논하고자 처음에는 저녁 모임에 갔었어요. 그 때 엄마들을 처음 뵈었었고, 제가 둘 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전래놀이를 한번 접했었는데, 아이들이 정

말 아이들을 위한 방향은 전래놀이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 때 많이 나왔던 게 환경에 관한 것, 전래놀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하는 독서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들 몇몇이 논의를 한 게 정말 순수하게 사교육을 뺄 수 있고 아이들이 우리가 옛날 놀았던 것처럼 한번 놀아보면 어떻겠냐 해서 전래놀이를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② 좋은 마을만들기 참여 동기

- 내부 운영진 중 몇몇이 좋은 마을마들기 사업 지원을 제안하여, 운영위원 7명의 사업준비를 시작하게 됨

"부회장 버금이, 그 분이 처음에 '이런거 이런거(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가 있는데 나중에 등록을 하려면 7인 이상 되어야 한 대요. 7명을 모으고 계셨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저희가 신청서 내고..."

- 2013년 7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우수단체로 선정됨

- 현재 2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음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모임 운영은 11명의 운영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핵심적 임원인 대표는 '으뜸이', 부회장은 '버금이', 기획담당자는 '번뜩이'라는 호칭을 사용함. 주 1회 운영진 회의가 있으며 월 1회 전체회의를 진행함. 현재 회원은 150여명임.

- 2013년도에 정식으로 모임이 출발한 후 신성동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인근 공원에서 '함께하는 전래놀이' 행사와 '숲 나들이 행사'를 진행함

"작년에는 하루에 전 학년들이 다 놀았어요. 1학년은 1교시 2학년은 2교시 이래서 6학년 6교시까지 놀았고, 그날은 수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나오는 학년 외에 학생들은 교실 실내 놀이를 또 했어요. 그날은 놀기만 하는 날 이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 또한 지역의 생협, 마을 복지시설(유성구 노인복지관), 마을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풍성한 활동을 전개함

“봄에 저희가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저희가 올해 제일 목표를 둔 게 네트워크 활성이에요. 그래서 봄에 저희가 단오행사 했을 때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나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채에 그림 그리는 것을 노인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분들께서 해주셨어요. 어르신들께서 그 때 많이 나오셔서 선생님이랑 선생님께 배운 제자들 60-70대 어르신들 오셔서 부채행사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그.. 마을 청소 행사하는 것도 저희가 결합해서 했고”

- 세기 절기행사로 화전만들기, 단오놀이 등의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놀이와 영화가 있는 밤마실’ 프로그램을 진행함. 그리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도 개최함

- 마을모임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함께하는 학습모임으로 다양한 독서를 통해 생각을 나누는 문화교실도 진행함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지역주민, 구청, 주민센터, 초등학교 등의 관심으로 재능기부자도 늘어나고, 보다 폭 넓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한 분 한 분이 참여를 하세요. 열 명이 덩어리로 와서 우리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한 분이 와서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재능기부 하겠다 해서 소모임이 자연스럽게 결성이 되고”

- 엄마들 중심의 활동에서 아빠들의 참여로 확대되었고 구성원들의 관계가 좋아짐. 예를 들어 마을모임 운동회 때 많은 아빠들이 참여하여 마

을잔치이자 가족잔치가 됨

"가족 마실 운동회 때 아빠들이 왔어요. 그 때 신청인원은 어...8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외국인들 가족까지도 다 해서 (중략) 말은 별로 안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큰 행사들이 작년에 많이 있어서 아빠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정적이거나 가사 일을 많이 분담해주지는 않는데 몇몇 분들은 우리가 놀고 들어가면 여섯시가 넘어요. 여섯시 반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와서 설거지 해놓으시고 밥을 해두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엄마들 모임간다고 하면 싫어하시는데 마실간다고 하면 음.. 아빠들도 갔다오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아빠들도 그때 친해졌고. 저번엔 구청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가족 운동회..."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마을모임 활동이 가족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참여도가 떨어짐. 그리고 엄마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도 일탈이 이루어짐

- 마을모임의 새로운 참여자 확보가 다소 어려움. 특히 마을에 새롭게 이사 온 젊은 엄마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마을모임을 유지하는데 실무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서 오는 피로감이 있음

③ 이후 계획

- 향후 일상생활에서나 학교수업에서도 쉽게 배워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래놀이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자격증 및 지식을 습득하여 모임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전통놀이) 일상화를 시키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일상화가 더 되어야하지 않나. 저희가 또 조금 추구하는 건 학교 창작활동시간에 아이들이 실컷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희가 능력이 자격이 지도자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엄마들도 갖추고자 하거든요..."

- 마을모임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절실함.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교실 확대를 확대하고 싶음. 따라서 이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음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육아라던가...이런 부분 예상했던 거는 있어요. 하고 싶었던 부분은 맞벌이 엄마들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중략)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진행이라던가 맡은 역할 분담이라던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대전시의 재정지원이 마을모임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 있지만, 예산간의 항목변경의 어렵고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하지만 실무부담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급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즉 실무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서 인건비성 예산을 책정해야 함

"쓰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죠. 그러고 저희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왔을 때 찾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이라던가 먹는 거를 찾기도 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때 중요한건 먹는 거거든요. 나눠먹고 이런 건데, 식비 퍼센트가 있더라구요. 10% 이상 넘으면 안된데요. 제약이 조금 있는게 어렵더라구요. "

"엄마들이 나와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인건비 같은 게 전혀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고정 인건비 뭐 이런 건 내부에 있는 임원들 간에 전혀 못주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의 실비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금 편안할 것 같아요."

- 다른 마을모임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주민센터 차원에서 마을모임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7) 2013-C-46(석교마을미디어센터)

가. 일반 현황

- 마을모임의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의 유형 : 마을미디어형
- 마을모임 형성 시기 : 2012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2년
- 마을모임 참여인원 : 50명
- 활동 지역 : 중구 석교동, 호동, 옥계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마을어린이도서관인 알짬의 운영시간 이후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교육공동체를 운영함

-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을기자단을 만들어 마을신문을 만들기 시작함

"처음에는 마을 속 보물찾기를 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마을의 잘 알지 못했던 작은 것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했어요. (중략) 두 번째가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다'였어요. 우리가 찾은 이런 소중한 마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상처를 쫌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인사도 안하고 뭐도 안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막상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다를 하면서 어른들을 찾아가는 인터뷰 과정들을 했는데 어른들이 잘 맞아 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바쁘셔서 일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울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어른들 만의 문제일까 또 아니면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마을을 또 다시 살펴보니, 마을 안에 다들 바쁘고 다들 어렵고. 저희는 정말 원도심이잖아

요? 아파트 한 체 없는. 이 작은 마을 임에도 정말 바쁜 생활에 마을에 소통이 정말 없는, 가족 간의 소통도 많이 없는 상황인데 마을에서는 그게 더 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마을이 정말 장치가 돼야하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런 소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의 과정에서 마을 신문이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선 마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신문이라는 걸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 마을기자단의 규모가 커지자 별도의 마을단위 사업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석교마을미디어센터를 만들기에 이름

② 좋은 마을만들기 참여 동기

-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재정과 신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음

- 기존에 형성된 마을도서관과 풀뿌리사람들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알게 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매월 1회 발행하고 매주 1회 기획과 편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함

- 2012년 12월 창간 준비호를 발행한 이후 2014년 9월까지 창간호를 포함하여 20호를 발행함

- 조직구조는 발행인, 편집장, 그리고 기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디어로서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월 1회 마을신문 발행과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음

- 그리고 마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주민 토론회인 '1080 주민생생테이블'을 개최하기도 하고, 주민 간 의사소통과 마을알기 차원에서 마을 지도를 그리는 석교동 커뮤니티 맵핑을 수행하기도 함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지속적인 신문발행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음. 예를 들면, 주민 간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민원형식으로 호소하여 미디어센터 차원에서 중재역할을 맡아 이후 상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한 사례도 있었음. 그리고 마을 인근의 약수터 수질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꽁, 마을 내 공원 신축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마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안들을 주민들의 시선으로 보도함

- 1년 반 정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음. 이러한 신뢰는 주민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주민들 중 개별적으로 자발적 후원금을 내거나 광고를 요청하는 효과로 나타남

"(자문위원회 구성은) 저희마을에 쫌 오래 진짜 거의 토박이로 사신 마을 원로 분들이 쫌 많이 계시고 어쨌든 제일 적게 사셨어도 한 30년 이상 마을에서 역할들을 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신협 이사장님도 계시고 새마을 금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마을에서 각각 봉사를 되게 많이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네 그렇게."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본인은 안 그래도 이거를 혼자 이렇게 명함을 뿌리고 다니시면 힘들었는데 신문에서 이걸 대신해줘서 너무 고맙더라,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는 신문 광고를 계속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오히려 고마워 하셨어요."

- 기자들이 신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배포까지 직접 하면서 주민들

과의 교감을 쌓을 수 있었고 교육적 효과도 얻음

"저희가 신문은 가가호호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을주민들을 신문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벽이 많이 없고 직접 찾아 뵐 수 있고, 그런 소통이 저희에게는 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5000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안에 어린이, 청소년, 어른,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기자단이 각각에 세대별로 이렇게 모여져 있구요. 신문을 또 같이 돌려요. 청소년들이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신문만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교육을 함께 해주거든요."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사업진행 상 어려운 지점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컸음. 이런 상황에서 2014년 9월에 마을 주민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후원을 해 주기로 결정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초기보다 주민들의 마을신문에 대한 인식이 많아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린이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좁게 이해하거나, 가가호호 신문을 꽂아 놓으면 다른 광고지와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 마을신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

③ 이후 계획

- 마을신문이 마을모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재정 자립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현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인원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함

- 처음 시작하는 마을모임의 경우 멘토링 횟수를 늘려야 하고, 활동가들이 서로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의해 마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관해 주민의 입장에서 신문의 기자를 작성함으로 인해 일부 관련 기관에서 탐탁찮게 여기는 경향도 있음. 반대로 적극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음

-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마을 주민과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 활동비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사실은 활동비가 문제이기는 해요. (중략) 우리가 쓸 수 있는 활동비가 같이 지원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중략) 이런 좋은 뜻으로 마을에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특히 대표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 사비를 많이 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근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나쁘게 쓰실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에서 마을을 좋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비도 일정부분은 월 활동비나 이런 것들에 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 방송장비 등 고가의 장비에 대한 임대지원이 필요함

- 마을 내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계해 주고 모임 간에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 간사 혹은 마을 활동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공간이 정말 필요해요. 마을마다. (중략) 그런데 주민끼리 모이고 뭐 이러이런 일을 할 때 물론 주민센터도 공간이 있지만 함께 세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복지관

조차도 없거든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중략) 각각에 이렇게 놓는 것들이 아니라 (중략) 청소년들을 내모는 자리가 아니라 청소년을 불러서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이 (중략) 너무 필요해서, 대전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보려고 되게 많은 걸 알아봤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왜냐면 구 자체가 돈이 없어서 구하고 뭐 매칭 사업이어서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시차원에서도 안되냐?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 (중략) 특히 원도심에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따뜻할 것 같지만 약간 마음에 그 부족함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8) 2014-A-77(응답하라 2030)

가. 공동체 현황

- 마을모임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 유형 : 환경생태
- 마을모임 형성시기 : 2014년 1월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1년
- 참여인원 : 17명
- 활동지역 : 대전시 전역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지역 청년들이 소셜다이닝을 통해 정보교류, 사교, 토론의 장을 만들고 동시에 건전한 식생활 문화 추구함. 단순히 식사하는 모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 및 문제에 대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예를 들어 각자 개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문제로 지도

를 만들어보는 방식 등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니까 요즘에 그런 소셜다이닝이라고, 같이 요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좀 더 고민도 얘기도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개인들의 고민이 청년들의 고민이 모이면 사회문제가 되잖아요. 더불어서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된다면, 그런 거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환경 커뮤니티맵핑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맵핑을 통해서 자료들이 나중에 지자체에서 그런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하는데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더불어 저희가 시간이 더 많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② 좋은 마을만들기 참여 동기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20, 30대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후 모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2014년에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공모 사업에 지원함

“14년 1월 달에 환경운동연합회원들끼리 젊은 사람들 참여가 너무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단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몇 명 모아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활동을 하다가 저희 취지랑, 딱 맞는 것 같아서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나 요즘에 이런 활동도 한다하면서 막 여기저기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전에 이런거 있는데 이런거 해보지그래 라고 해서,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찾아봤더니 뭐 ○○형이랑 ○○씨는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우리 이거 한 번 해 볼까요, 먼저 얘기를 해봤죠.”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월 1회 정기모임과 비정기적인 번개모임 등 월 2회 이상 모임을 진행함. 현재 대표자와 회계담당자가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각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감. 모임은 주로 취사가 가능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밭생협을 중심으로 열림

- 주요 활동은 20, 30대 청년들의 식사모임으로 평균 월 2회 친환경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지역 및 사회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임. 모임에 참여한 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기록함.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서로 공유함

"커뮤니티맵핑은 저희가 뭔가 활동을 하긴 하는데, 뭔가 그래도 쉽게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하다보니까 참여하기도 쉽고,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중략) 생활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올리고 있어요."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대한 관심이 높아짐. 즉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하는 시 정책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짐. 여기에 시의 재정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해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구요. 사회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멤버들이 또 오히려 이런 게 지자체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니까 멤버들도 '어 지자체에서 무슨 활동을 하지?' 이런 것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구요."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모임 구성원들이 20, 30대 직장인들이었기 때문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시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실무적 부담도 높은 편임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끄는 게 가장 어렵죠. 다들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다들 바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바쁘다 바쁘다 하는거 같고..."

"저희가 먼저 그런 모임이 구성됐었잖아요. 근데 마을만들기사업을 추가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간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저랑 뭐 지금 회계 처리하는 총무 그 정도."

③ 이후 계획

- 현재 지역시민단체의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모임의 외연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부엌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저희가 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고 얘기를 할까 하는데, 모금운동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로 잘 돼서 나이 먹고 (중략) 지금 청년들인데 청년들에서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결혼도 하시고 와이프도 데리고 오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이용할 할 수 있는 적당한 공공장소가 부족함. 현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한밭생협의 지원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공간이라고는 보기 힘듦. 즉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퇴근 후 직장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낮에 모일 수 있는 모임장소는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공지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밤에 회사 끝나고 거의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회사 끝나고 모여서 한 두 시간 정도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는 또 의외로 또 적어요.

(9) 2014-A-140(오색무지개)

가. 일반 현황

- 마을모임의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의 유형 : 교육형
- 마을모임 형성 시기 : 1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1년차
- 마을모임 참여인원 : 15명
- 활동 지역: 대덕구 목상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2013년 상반기에 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영어 학습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고, 학기가 종료된 후 이 모임을 해체하기 보다는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았음

-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들의 마을에서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퇴근 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저희는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공부를 하면서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뭘 한 번 해보자 그러던 중 마을만들기 운동을 알게 됐어요. (중략) 지역이 대덕구이다 보니 공단이 매우 가까웠어요. 마을에는 아이들, 노인과 같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공단이다 보니 근로자라는 분야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근로자에 관련해서 좋은 마을만들기와 근로자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고, (중략) 그래서 이 근로자를 위한 뭔가를 만들어서 이 분들을 마을로 끌어들여서 마을 안에서 뭔가 화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넓게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② 좋은 마을만들기 참여 동기

-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정보는 대표인 임OO이 거주하는 다른 마을에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했던 경험이 있었고 구성원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알게 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매주 1회 모임을 가짐. 전체 구성원은 15명이지만 대부분 직장인인 관계로 8~10명 정도가 참석함

- 모임에는 4개의 팀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팀, 지역 환경조사팀, 조사결과 평가팀, 그리고 요구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이들 중 하나의 팀에 참여함

- 모임의 주요 활동은 공단 기업체 현황 조사 (업체 탐방 및 간담회), 공단 근로자의 여가활용 및 재능나눔 요구조사 및 분석, 그리고 오색재능교육 및 나눔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프로그램 개발 초기단계로 내부 학습에 집중하고 있음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마을모임 운영과정에서 참여자 스스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모꼬지 자리” 시범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취감이 높아짐

-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구성원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내부 결속이 강화되었음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노동자들의 여가활용 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기가 어려웠음. 그런데 지원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다른 좋은 마을만들기 참가 마을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해결할 수 있었음

- 회계처리는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었음. 다만,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사례가 있어 첨부자료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교육분야의 특성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전체가 모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을 하고 서로의 상태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음

③ 이후 계획

-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만일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임을 지속해 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함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 관련 정보를 취득할 기회를 많이 제공받아 매우 만족하는 편임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상담을 위해 센터 인원을 보충해야 할 것임

- 멘토지원은 집단멘토링을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수시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음

- 마을을 지리적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넓은 의미로도 인식해 주기를 바람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좁은 시야에서 보시지 말고 넓게 보시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중략) 좋은 마을만들기가 바쁘고 동네에서 부자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명 말하는 동남아(동네에서 남아도는 아줌마)가 관심을 갖는 거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동남아였어요. (중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10) 2014-B-78(서구관저동자립생활센터)

가. 공동체 현황

- 마을모임 형태 : 비영리민간단체
- 마을모임 유형 : 복지
- 마을모임 형성시기 : 2010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1년
- 마을모임 참여인원 : 직원 12명(회원 300여명)
- 활동지역 : 대전시 서구 관저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교육, 훈련, 권익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모임으로, 2010년 '둔산자립생활센터'에서 독립하여 관저동에 중심을 활동해 옴

"장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자는 거죠. 지역사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

렇고, 장애인 분들이 지나 가면 피하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수군거리고. 저희가 경험한 거고요. 저희가 예민한 것도 있지만 아직 사회가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② 좋은 마을만들기 참여 동기

- 마을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려함

"관저동이 사실 서구의 중간이에요. 둔산 쪽에 몰려있어서 그렇지 관저동이 중간이고 흑석이 되게 큽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떤 교통시설을 빼놓은 사회적인 제반시설을 이제야 갖춰놓는 실정이죠. 시각장애인 한 명이 안다녀도 점자(블럭)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아직 시민들의 의식까지는 부족하다 이거죠.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고민해야하고 시민들도 고민해야하는데,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거죠."

- 시청의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안내 광고를 통해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현재 9명의 장애인과 4명의 비장애인이 모임의 핵심적인 실무와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 300여명의 대학생,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음

- 장애인 상담,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등을 하고 있음. 장애인 상담의 경우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 상담사들이 다른 장애인을 상담함 이러한 상담은 상담을 받는 장애인의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주고 있음.

-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상의 기술훈련, 그리고 지역대학의 관련 전공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정기적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함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모임을 통해 장애인-장애인, 비장애인-장애인, 직원-장애인 사이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일부 개선함

"장애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보행이 가능한 장애기 때문에 저는 일반 버스 타는 게 가능하니까, 직원들은 참여 자체만으로도 문제제기나 인식이 달라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저상버스를 한 번도 안 타본 분들도 계시고, 저상버스 버튼 하나도 안 눌러 본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서, 차츰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기존 업무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새로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실무적 부담이 높음. 여기에 장애인들의 실무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짐

③ 이후 계획

- 현재 활동 중인 모임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차기 년도에도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재공모하기 위해 준비할 계획임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멘토들의 지원과 조언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됨. 특히 멘토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수준이 높음

"어떤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 분 자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약자가 살기 좋은 환경들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는거죠. 저희가 모르고 있던 부분도 알려주시는게 많고요. 저희가 미쳐 관심 갖지 못했던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11) 2014-B-98(전민사랑 숲사랑)

가. 공동체 현황

- 마을모임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 유형 : 문화역사
- 마을모임 형성시기 : 2012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 1년차
- 마을모임 참여인원 : 10명
- 활동지역 : 유성구 전민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2011년 지역 성당의 환경분과 회원들이 아파트 숲 해설을 듣고 나서 아파트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됨. 강사로부터 아파트 숲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숲을 새롭게 인식하게 됨

"우리 모임의 마을 사업 이름도 그렇지만... 마을 숲, 마을 역사, 마을 친구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든 이 마을에 살면서 마을 친구가 잘 안 되는거에요. 이 동네에 살았다고 제가 알아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어떤 마을 중심으로 무언가가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개인 네트워크 형식으로 진행되었지, 그래서 우리 모임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를 알고 싶다 그러는 게 나무 박사가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무가 맺어준 인연으로 우리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정감을 나누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서..."

"선생님을 모셔서 아파트의 나무와 갑천의 새 등의 주제로 강의를 듣고 선생님 말씀이 저희 아파트 숲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훌륭한 자원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우리도 좋은 줄은 알았지만 어디가 어떻

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하게 되었고”

- 2012년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특별상 ‘아름다운 공존상’ 수상하면서 아파트 주민활동을 확장됨.

- 2013년에는 유성구자원봉사센터의 지원으로 마을 숲 해설 자원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② 좋은 마을만들기 참여 동기

- 마을숲 해설사 활동에 도움을 주신 강사분과 유성구청의 도움으로 2014년에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신청함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마을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한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충담함. 그리고 모임의 주요활동인 마을숲 해설 프로그램으로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도 무료로 제공함

“나무 이름표를 그려서 나무에 달아 놓았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보고 이걸 누가했는지 관리소장님께 물어 봤나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에게 올해 2학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갑천변 조류탐조대 망원경 설치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화합을 위한 마을 잔치에도 참여함

“전민동에서는 한 달 전에 주민 참여예산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전민동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하는데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의견을 묻고 안건을 올리고 주민들을 초대해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

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에요. 그런 걸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알려줘서, 조류 탐조대와 망원경을 설치하자는 안건을 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게 됐어요...정말 우리가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니까요. 그것에 집중하고 서로 나아갈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2013년 유성구자원봉사지원센터 사업(숲 해설사)을 통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신청함. 자연을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됨

"여기 숲 생태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알아 가야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알려주면 좋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하다보면 숲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자연이라는 소재를 통해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또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 주민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 확장하는 것은 물론 활동하는 과정에서 성찰의 계기가 됨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때로는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마을모임 활동으로 인한 특별한 갈등은 없으나 구성원 간에 약한 감정적 대립은 존재함

"어려운 점 많죠. 우리가 왜 이 모임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때그때 사람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상처

받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그때그때 대화도 하고 이런 모임의 특성이 (중략) 우리가 이 모임의 성격을 좋아해서 만났다는 한 가지 공통점 말고는 굉장히 흩어지기가 쉬운 관계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 장점이자 단점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인의 이력은 다르겠지만 주부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합의를 이루고 하는데 있어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는 부분이 (중략) 연습된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에요. 그런 게 어렵죠."

③ 이후 계획

- 향후 마을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넘어 마을역사로까지 관심영역을 확장할 계획임.

"작년에는 아파트 숲 투어만 했는데 올해는 역사마을투어라고 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고 진행 할 예정이에요. 전민동 근처에 역사적인 곳이 많이 있어요 (중략) 김만중이라던가..."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멘토링 지원은 프로그램 설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됨. 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사용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장비 취득이 불가능함. 그리고 마을모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필요함

(12) 2014-B-116(보슈)

가. 공동체 현황

- 마을모임 형태 : 주민모임
- 마을모임 유형 : 마을미디어
- 마을모임 형성시기 : 2013년 12월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연차: 1년차
- 참여인원 : 14명
- 활동지역 : 대전시 유성구 궁동

나. 마을모임의 형성과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① 마을모임의 형성

- 유성구 궁동에 소재한 '복합 문화공간 벌집'에서 활동하던 청년 4명이 '찌라시'라는 잡지를 기획함. 이후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고, 충청도 사투리로 '보라'라는 뜻의 '보슈'라는 무료잡지를 발간함. 2013년 3월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권의 잡지를 발간함

- 잡지는 청년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보는 '뉴스피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로컬아케이드', 지역 사람의 인터뷰가 실린 '잔소리(잔잔한 소리)'등으로 구성됨. 단순히 지역소식을 전하는 잡지가 아니라 지역의 청년담론을 자극하는 '청년미디어'를 지향함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젠 너무나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보가 너무 홍수같이 나와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더 그런 감이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한테 약간 그런 문제 의식화해서 약간 주관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경험하고 싶었고, 약간 청년들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니까 저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강요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진 않고 지금 그저 청년들이 생각할 꺼리들을 그런 걸 모아서 던져줄 뿐이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청년들의 몫 인거죠."

다. 마을모임의 조직과 운영

- 현재 총 14명이 5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음. 에디터팀 4명, 디자인팀 3명, 홍보팀 3명, 사진팀 3명, 메니지먼트팀 1명으로 충남대와 카이스트 학생 그리고 지역청년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음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분야를 나눠가지고 받았었고, 하고 싶은거, 자신들이 이제 본인 의사를 가지고 참여한 거죠.”

  “다들 ○○의 취지에 공감을 했고,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창업을 해서 디자인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재능기부 같은 (...) 모든 멤버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 일주일에 한 번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팀별 회의 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함. 정기적인 회비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회비를 걷어 운영비로 사용함

- 지역 청년잡지 ‘보슈’ 발간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임. 보슈는 대전 지역 대학가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소식과 사회적 이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잡지로 격월로 발간함. 또한 지역 청년들의 소통공간과 정보 나눔을 위한 온라인 형태의 커뮤니티 운영함

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의 성과와 전망

① 성과

- 지역청년들이 직접 만든 미디어를 통해 청년공동체 형성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 사업에 참여하게 됨. 모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카이스트 교내방송 ‘BORAKAI’, 대전휴먼라이브러리, 대전마을미디어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도움을 많이 받음

- 대전시의 지원이 없었다면 잡지를 발간할 수 없었음. 즉 시의 지원이 ‘보슈’라는 미디어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계기임

  “우선은 이 사업이 없었다면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려면 인쇄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때문에 우리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고, 솔직히 인쇄비를 100만원 넘는 이 돈을 누가 내겠어요, 개인이. 회비로 해도 또 저희가 다 청년들인데. 뭐, 따로 수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해 준 게 너무 이런 사업이 너무 고맙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청년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된 계기 (중략) 저도 이제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이 사람들을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중략) 제가 이제 모르던 영역이었어요. 잡지사 뭐 이런 (중략) 제가 뭐 그쪽에 경험이 없었는데, 이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가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게 되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②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지점

- 회계처리 시 예산항목과 비율에 제한이 있어 융통성이 없고, 각종 증빙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음

"뭐 아무래도 그런 게 가장 크겠죠. 서류로 뭐 증빙한다거나 그러고 이제 회계 담당에서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서류를 증빙하고 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회계 관리를 하고 (중략)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구요. 처음엔 되게 힘들어 했었죠."

- 잡지의 내용 및 디자인을 두고 초기 팀별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고 있음.

"잡지사들의 공통적인 규칙인거 같은데, 이제 팀 단위로 이제 활동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디자인팀은 디자인적인 그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있고, 에디터팀은 글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글을 더 넣고 싶은데,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적으로 이제 딱 이게 딱 양을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서로 어색할 때는, 말이 잘 안 꺼내지는 거예요, 잘 (중략) 어색하니까. 이젠 점점 친해

지고, 나중에 이제 편하게 그냥 자기 불만이나 마음속에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얘기를 하자고 (중략) 웬만하면 같이 뭐, 술을 한 잔 한다던지, 그러면서 다 푸는 편이예요."

- 현재 발간하고 있는 잡지가 무료로 배포되고,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어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한 형편임

③ 이후 계획

- 청년들을 위한 '보슈미디어'를 만들려고 함. 현재 발간하고 있는 잡지뿐만 아니라 다른 보슈TV, 팟 캐스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종합적인 청년미디어를 만들어 보고 싶음

"이제 저희들의 이제 쫌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미디어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잡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언론 보면, 되게...약간 제 역할을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대안미디어로써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을, 생각꺼리를 던져주고. 그니까 그래서 하나의 미디어가 돼서 ○○티비도 만들고 싶고, ○○티비, ○○팟캐스트.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하나의 이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죠."

마.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대전시의 지원이 잡지를 발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음. 단 모임 성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예를 들면 잡지 글쓰기,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전문적 학습이 필요함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는 많이 느꼈어요. 그니까 사실 그게 뭐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멘토를 받았어서 너무 좋았던 게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잡지를 만드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던지, 뭐 현실에서 부딪칠 문제라던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중략) 사례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게 좋았었고.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에디터팀들이 전문적인 기자들이 아니고, 다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원했던 거잖아요. 그런 뭐 전문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교육이라던지, 뭐 홍보팀같은 경우에는 잡지를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따올 것인지 그런 부분, 그런 맞춤형 교육..."

5. 정책 제언

5 정책 제언

- 현재 주목받고 있는 도시의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만들기 운동은 단순한 사교, 친목, 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즉 공공성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특징이 있음.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대전을 대표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마을어린이도서관, 도시농업, 농촌체험 마을공동체 임. 이들 중에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례조사 한 마을모임의 경우를 보면 내적 신뢰수준이 높고 관용·배려 차원에서도 구성원 간 상호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와 동의정도가 높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

- 대부분의 사례에서 다른 모임이나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호혜적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지만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도 있었음. 기존의 제도화된 집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이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도전자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임

-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 여성 주부를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지만 활동 과정에서 아이들과 남성 가족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음

-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모임이나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도 하며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사례도 있었음.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모임의 형성과 운영에서 기존의 마을어린이도서관과의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함. 이는 좋은 마을만들기 참여 모임들의 확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도시의 마을공동체 운동은 도시의 문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 지속적인 마을모임 활동을 위해,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해 봄

■ 첫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함

- 현장 전문가들 또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주민활동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지방정부와 마을모임을 연결해 주듯이 마을모임과 마을모임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주민활동가 필요. 모임 별로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교류할 수 있어야 함

"지금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관과 저희들(마을)을 이어주는 것처럼, 마을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이런 생각들이 함께 모여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주민활동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마을 안에 있는 주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주민활동가가 필요하고, 만약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양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는 것들이, 마을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현장 전문가 A)."

■ 둘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이 필요함

- 마을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음. 도시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약화된 이유로 개인주의 문화 확산을 듦. 이는 현재의 마을공동체 운동이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율성과 공존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바꿔 말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적 공간이 필요함

- 공간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임. 특히 마을만들기 활동에 여성주부들이 많이 참여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즉 여성의 욕구와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해야 함. 관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함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시도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마 각 공동체별로 이런 커뮤니티공간을 해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빈집프로젝트나 빈 공공시설에 안의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운영은 주민들이 한다던가, 이런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것들이 그냥 필요하다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대전시 차원에서의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현장전문가 A)."

■ 셋째, 마을만들기 모임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효과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자본센터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우선 상담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사회적자본센터 운영하고 있는 멘토 제도가 마을모임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따라서 멘토들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멘토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이 2년차가 되고, 이에 따라 마을모임들 또한 더욱 성숙해지면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

- 모임의 활동기간이 짧을 경우 회계 등과 같은 실무차원의 지원과 상담 수요가 높지만, 기간이 길수록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따라서 멘토링의 횟수와 상담 수준을 높여야 함

- 또한 모임과 모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자로써 멘토의 역할이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멘토의 역할은 주로 개별 마을모임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네트워크 형성자로까지 확장해야 함

■ 넷째,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함

- 마을모임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업무로 실무적 부담이 높음. 따라서

행정절차와 증빙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본연의 마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모임 내에 행정업무 경험자 없는 경우, 그리고 활동한 연차가 짧은 수록 행정업무로 인한 부담이 높음

- 예산과 관련해서는 활동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즉 예산 집행 중 항목조정의 융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사업과목 뿐만 아니라 예산 항목 변경에 대해서도 형식적이지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번거롭거나 까다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례가 많았음. 또한 인건비에서 임원이나 실무자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 모임들이 고가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고, 필요할 때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재정 부담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천막이나 음향장비와 같은 행사 용품,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다섯째, 마을모임에 대한 평가는 수치화된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진행과정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함**

- 눈에 보이는 계량화된 성과보다는 진행과정과 모임이 마을에서 갖는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평가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치단체 및 공무원들이 마을모임에 참여해 주민들이 어떻게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음. 즉 양적인 평가방식을 고집할 경우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더욱 높아짐. 즉 행정 및 재정지원은 하되 성과관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음

"관이 참여단체의 성과를 재촉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사업이 6개월, 1년 만에 끝난다고 해서 보여 달라고, 재촉하는 형식은 오히려 활동가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지원사업을 성공시키고자한다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될 것이다. 마을의 상황을 잘 짚어낼 수 있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따로 마련하는 세심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현장 전문가B)."

■ 여섯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해야 함

-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활동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함. 홍보는 마을모임이 사람들로부터 의심이나 적대감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들임

참고문헌

- 권단·김상철·김신범·김정찬·박영길·하승우·한채윤. 2014.『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삶창
- 김도균·정선기. 2014.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대전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25(1): 281-306
- 김상돈. 2014. 『마을공동체 이론과 실제』. 소통과 공감
- 김찬동·서윤정.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나종석. 2013. “마을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마을인문학의 구체화를 향향.” 『사회와 철학』26: 2-31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26(1): 53-87
- 이재열. 2006.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사회자본.”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논문집(5월)
-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35(2): 8-33
- 진안군. 2008. 「진안마을만들기 2단계 발전기본계획」진안군

부록(1)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실태 및 지원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팀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센터의 지원을 받아 대전시 마을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대전시 마을공동체 실태 및 지원방법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대전시 마을공동체 실태와 지원방법 개선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대전시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적극적이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연구원: 김도균(전화번호)
□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조사날짜: _____
■ 장 소: _____
■ 담 당: _____

다음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및 귀하가 속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주세요).

1. 귀하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몇 년도에 선정되었습니까?

① 2013년 ② 2014년 신규선정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7인 이상의 주민모임 ② 비영리 민간단체 ③ 협동조합 ④기타

3.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은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어느 사업유형(어느 단계)에 선정 되었습니까?

① 모이자(A형, 마을조사 및 주민학습) ② 해보자(B형, 소규모 공동체사업)
③ 가꾸자(C형, 중규모 공동체 사업)

4. 귀하께서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순위와 관계없이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4-1) ( ) 4-2) ( )

① 지역주민, 이웃을 통해 ②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을 통해
③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페이스북,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④ 대중매체(종이신문, 라디오, TV 등)를 통해
⑤ 각 관공서(구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⑥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을 통해
⑦ 관련 지원기관(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⑧ 시민·사회단체 (NGO, 교육·복지·문화 관련단체 등) ⑨ 기타(내용:)

5.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15명 미만 ③ 15~20명 미만 ④ 20~25명 미만
⑤ 25명 이상**(직접 적어주세요____명)**

6.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은 정기적인 회비가 있습니까?

① 정기적인 회비는 없다 ② 있다(**직접 적어주세요 _____원**)

7. 귀하께서는 마을만들기 모임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재정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순위와 관계없이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7-1) ( ) **7-2)** ( )

① 회비
② 대전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금
③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주변의 후원
④ 수익사업
⑤ 기타( )

8.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이 출발하는데 주요하게 도움을 받은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① 지역의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②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③ 인터넷 카페모임
④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⑥ 공공복지·교육·문화 관련 단체
⑦ 없음
⑧ 기타(내용:)

9. 귀하께서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0. 귀하께서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1) 개인의 변화 ( )

① 이웃과의 관계회복 ②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③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 ④ 경험을 통한 교육·학습기회
⑤ 재미와 보람을 느낌 ⑥ 기타(내용:)

10-2) 지역사회의 변화 ( )

① 주민 간 유대감 강화 ② 마을만들기 인력 양성
③ 지방정부와 시민협력 ④ 주민학습의 기회
⑤ 주민자치 역량증대 ⑥ 기타(내용:)

11. 다음은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의 운영**에 관한 질문 입니다(동의 정도에 따라 해당 칸에 **√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모임의 구성원들은 모임(마을만들기)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모임은 구성원들이 회의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마을모임의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마을모임은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마을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마을모임은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기관(전문가 포함)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마을모임은 다른 마을모임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1)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의 활성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　② 활성화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활성화 되었다
⑤ 매우 활성화 되었다

12. 귀하께서 마을만들기 활동 중에 만난 **어려움(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순위와 관계없이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2-1) ( ), **12-2)** ( )

① 모임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
② 모임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③ 이웃들의 무관심하다
④ 리더십이 부족하다
⑤ 참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⑥ 사업기간이 짧다
⑦ 회계처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⑧ 공무원들의 협조가 부족하다
⑨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하다
⑩ 기타(내용:)

다음으로는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와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주세요).

13. **(현재 사회의 마을공동체는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대전시** 마을공동체가 약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위에 관계없이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3-1) ( ), **13-2)** ( )

① 아파트 중심의 거주와 생활
② 잦은 이사
③ 사생활 보호 등 개인주의 문화 확산
④ 부족한 여가시간
⑤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
⑥ TV 신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
⑦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의 부족
⑧ 공동의 관심사 부재
⑨ 마을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⑩ 주민 간 유대감 부족
⑪ 공동체 교육의 부재
⑫ 기타(내용:)

14. 귀하께서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4-1) ( ), **14-2)** ( )

① 적극적인 사업홍보
② 행정절차 간소화
③ 사업선정 및 평가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④ 전문적인 상담체계 구축
⑤ 예산확대
⑥ 사업기간 확대
⑦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⑧ 주민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
⑨ 마을공동체간 교류 지원
⑩ 전담 유급 직원 및 지원기관 운영
⑪ 기타(내용:)

15. 귀하께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지원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16. 귀하께서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동의 정도에 따라 해당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	①	②	③	④	⑤
2) 심사과정	①	②	③	④	⑤
3) 멘토링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분야별 전문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 사업	①	②	③	④	⑤
6) 회계정산 상담	①	②	③	④	⑤

17. (2014년 대전형 좋은 만들기 사업의 지원 1, 2차 공모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업 지원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의 1, 2차 공모방식이 적절하다
② 1, 2차 공모방식을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주민모임이 만들어지면 상시 지원하고 공모절차는 없애는 것이 좋다
④ 상시 지원과 공모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⑤ 기타(내용:)

18-1) 귀하께서는 다음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해당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대전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주민공동체 형성>**과 **<주민공동체의 사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주민공동체 형성 사업은 **'상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미 형성된 주민공동체의 사업 지원은 '**공모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기타(내용:)

19. (아래 보기는 2014년 새롭게 당선된 대전시장의 마을공동체 관련 공약입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보기에서 참여하고 싶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습니까? (참여하고 싶은 마을 공동체 활동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9-1) ( ), **19-2)** ( )

① 안심 길, 건강 길, 편안 길 등 길 조성사업
② 안 쓰는 물건이나 재능을 공유하는 공유네트워크(공유경제) 사업
③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학교
④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도시계획
⑤ 마을 커뮤니티 공간(북카페, 주민공유 공간 등) 조성
⑥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활동
⑦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마을미디어 사업
⑧ 기타(내용:)

다음으로는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과 개인의 일반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해주세요).

20. 귀하께서는 현재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만들기 모임에 몇 년이나 참여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직접 적어주세요**(년 개월)

21. 귀하께서는 현재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만들기 **활동 이외**에도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2.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활동에 총 몇 년이나 참여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 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 ~ 7년 미만
⑤ 7년 ~ 10년 미만 ⑥ 10년 이상(**직접 적어주세요 _____년**)

22-1)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모임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① 대표 ② 임원(총무, 회계 등) ③ 회원 ④ 기타(내용:)

23.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 입니까? ( )구, ( )동

24. 귀하의 마을만들기 모임은 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구, ( )동

26. 귀하의 성별은 무엇 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장시간 동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움으로 작은 사은품을 준비했으니 잊지 않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록(2) : 대전의 마을공동체 현황 및 실태조사

모임 유형	□ 주민모임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공동체이름	
활동 지역(행정구)	□ 대덕구	□ 동구	□ 서구	□ 유성구	□ 중구

피면접자 성별	□ 남자	□ 여자	연령	만 ( ) 세	직업	
피면접자 경력	( ) 년 ( ) 개월		조직내 역할		유사경력유무	

면접 날짜	2014 년 월 일	면접자	

▮ 공동체 조직에 대한 질문

1. 공동체 활동이 처음 시작된 계기와 배경,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 ? (개인, 마을의 문제)
2. 공동체 구성원 인원수와 조직구조(운영자금), 역할 및 구성원 특징은 ? (내부인, 외부인)
3. 공동체 바라보는 시각_잘된 점, 못된 점 (내부구성원, 외부인의 시각) ?
4. 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구체적으로) ?
5.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갈등은 없었는가(내부갈등, 외부갈등) ?
6.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마을의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가 ?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활동에 대한 질문

7.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
8.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나 ? (구성원, 조직성격 등)
9.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어려운 점은 ? (구체적으로 회계, 운영노하우 지원, 내부갈등 등)
10.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당자사의 활동 평가(구체적으로 잘한 점과 잘못한 점) ?
11.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습득하였으며, 적용 효과가 있었나 ?
12.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만료후의 계획은 ? (활동의 지속성, 다른 영역으로 확장가능성 등)

▮ 공공기관 및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에 대한 질문

13.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멘토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만족도 및 도움의 정도 등)
14.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지원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만족 하는가 ?
15.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현재 지원활동 외에 요청사항은 ? (활동가 인건비, 재산취득)
16.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제외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만족 하는가 ? (시청 및 구청, 안정행정부-자립형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마을기업,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육성-,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경부-커뮤니티비즈니스-, 농림부-농어촌공동체회사-)
17.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은 ?

부록(3)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문의견

▌ ○○○/교육공동체한뼘더

우선, 저희 마을 안에서 마을공동체의 사업의 시작한지 10년, 알짬마을도서관을 통해서이다. 유창복 센터장님이 '10년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10년이 되어가는 저희마을에도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와 이런 도움이 있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특별히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마을 안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회였다.

마을 안에서 현장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도서관, 마을신문, 청소년카페와 같은 이런 마을 안에서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함께 다뤄지거나, 함께 이야기되면 좋겠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오늘 발제내용 중에 '끼리끼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말 가운데, 우리 주민들이 사전모임 단계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에서부터 저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내의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의 지원, 지금은 처음부터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작은 모임에서 사전모임에서부터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20-30만원씩이라도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하나는, 마을 안에서 주민활동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을별로, 저희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이 있고,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도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마을 안에서 함께 이어지고, 함께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한다면 더욱 더 마을 전체적으로 마을을 함께 살리는 그런 좋은 일들이 되지 않을까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중심을 잡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지금은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관과 그리고 저희들(마을)을 이어주는 것처럼, 마을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이런 생각들이 함께 모여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주민활동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마을 안에 있는 주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주민활동가가 필요하고, 만약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양성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는 것들이, 마을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이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 되었는데, 저희 마을에도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시도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각 공동체별로 이런 커뮤니티공간을 해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한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빈집프로젝트나 빈 공공시설 안의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운영은 주민들이 한다던가, 이런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것들이 그냥 필요하다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대전시 차원에서의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계획을 공동체 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나온 이야기지만,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사업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지고, 사업이 전체적 결과에서 보여 지는 것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에서 자율성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마을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다녀갔다. 저희가 공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많은 애를 썼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과 관련한 사업지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저희는 사업지원서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자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마을 안에서 올해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150명의 주민이 모일 수 있는, 8세부터 80세 까지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에 사실 관에서 함께 참여 해주시는 부분을 꺼려한 것이 있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 관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교육들이 함께 주어진다고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저희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마을에서 소소하게 진행했던 도서관만들기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 활동을 7-8년 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정의 선배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못 겪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도서관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립하는 과정에서 위축되는 시기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지원사업을 가지고 해왔던 사업이 지속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사업을 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도서관의 작은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참여하면서 참여단체로서, 주위의 다른 단체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일반활동가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마을에서 경험이 많지 않고, 마을에서 소소하게 진행되었던 것들이 많았다. 그런 과정에서 1년 혹은 일정기간동안 지속되겠다 혹은 없어지겠다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다. 왜냐하면 함께하고 싶다든지, 취미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라든지 참여가의 동기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지원 사업이라든지 배달강좌제와 같은 형태들로도 충분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이번 지원으로 인해 동아리지원사업이나, 배달강좌제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지원사업이 일반적인 마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다.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전의 어떤 경험이 있는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초자'다. 이런 분들이 지금의 경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서 또 다른 마을사업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는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단체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를 잘 파

악을 해서, 이후에 마을 만들기 취지에 부합되는 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단체들의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도와주는 상시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고 (지원금 지원 외) 다양한 지원들, 컨설팅들이 지원기간에만 지원되는 것에는 무리수가 있다. 사업기간에만 관심을 갖고 지원이 끝난 후에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은 마을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이다. 사실 6개월이나 1년 동안 공동체가 성숙되고 안착되기에는 긴 기간이 아니다.

그리고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사실 이 사업을 계기로 한번해보자하는 마을에 참여하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다. 생각지 않은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거나, 단지 지원금을 받기위해 참여하는 단체들도 제가 알기로는 있기도 한다. 그런데 참여단체들을 보면 예산이 없이도 활동을 해왔던 단체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최소한의 회비조차 없이 운영되었던 단체들도 있다. 예산 없이 잘 운영되었다가 예산이 없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지원금에 의존해서 진행하다보면, 활동이 굉장히 빨리 위축될 수 있다.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된 것인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가 깨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마을에서 공공활동을 하다보면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공동체들이 마을 안에서 공동체 뿌리를 잘 내리고 마을 안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결국의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의 단체를 만나게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마을 일에 단체별로 엮이게 하는 활동들도 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마을 활동가들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시작하는 단체이든 활동가들이 내가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

관이 참여단체의 성과를 재촉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사업이 6개월 또는 1년 만에 끝난다고 해서 보여 달하고 재촉하는 형식은 오히려 활동가들의 의지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의 방식은 공무원들이 행해왔던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성공하고자한다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잘 안될 것이다. 마을의 상황을 잘 짚어낼 수 있는 마땅한 평가지표를 따로 마련하는 세심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마을교육연구소

지금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주년이 되었고,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주민들이 지원센터가 있는 것을 40% 이상이 알고 있고,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결과물을 봤다.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런 매개역할을 하는 지원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새로운 싹을 틔우지 않나 싶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보다 지금 우리를 돌아보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성찰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지겨운 것일 수도 있다.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교육이나 배움은 체험하는 것이다.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가를 중간단계의 연구자, 공무원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험하는 방식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책 속에서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관련법을 만들고, 전담기구를 만들고 예산이 내려오고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어 지고 굉장히 제도화의 길을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데, 실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도화 이전에 주민들의 풀뿌리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이 참여한 이유는 자기 필요에 의해 참여하는데, 그런 참여를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정책안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1. 기존의 제도화중심의 사고를 할 때, 우리는 정책화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이나 사업안에서 이해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방식에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가 주민들이 참여한 소소한 경험들을 놓칠 수 있다. 사람이 빠질 수 있다. 참여한 청년들이, 아줌마들이, 노인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능하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활동이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수다를 떨거나, 술을 한잔 마시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리 마을에서도 의미가 있고 내 삶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체득하게 된다. 그래서 일상적인 학습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보면 일상적인 학습이 살아있는 모임이었다.

2. 2년 동안 멘토활동을 했는데. 배운 것이 있다. ①사업실행계획서(서류)에 담아내지 못했지만 진짜 주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 현장에서 들어난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많아보였는데 직접 가보니 달랐다. 절절하고 필요하고 하면 잘될 것 같고 돕고 싶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②주민들은 행정의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려운 지점이 어떤 것이 있나 확인하고, 일상적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마을 단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민의 생각을 들어보다 보면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와 중간(지원)센터에서 나타나는 방향과 저희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달랐다. 그런데 다르다고 배척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어떤 방식을 풀어가야 하는지의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런 경험들을 공동의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동의 학습을 통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체험하신 분들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보람이 있다라고 느낀 분들은 분명히 달라진다. 첫 번째는 마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일상에서 일어난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행정가, 중간지원조직, 마을행정, 그리고 마을에 작은 모임 등 많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량이 상승되어야 마을만들기 사업도 살아난다. 행정은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있고, 연구자는 연구자가 현장을 보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철학과 논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공동 학습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도 학습지원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마을에서 작은 소모임, 이 학습 소모임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치에 대하여 공헌할 수 있는 학습모형을 짜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지역 마스터플랜을 제안해야 한다. 행정에서 지역 마스터플랜을 실패하는 이유가 마을주민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아서이다. 기획단계에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해주고, 운영하고 평가의 전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험을 제공하다는 점에서 접근한다는 대전만의 새로운 방식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전체 공동의 학습을 제안한다.

▌ ○○○/대전광역시의원

‘걱정이다’ 노래에 마을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아프리카 격언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운동이 최근에 각광받는 운동을 자리매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대전은 조례에 의해 올해 3억4천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 간의 안전행정부 주관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번에 도시재생부로 이관이 된다. 이관이 되면 민선5기의 중요한 과제인 도시재생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만들기 현황과 과제와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기 이전에 우리형편에 맞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전시 사회지표에 의하면 소득수준을 떨어지고 있고, 계층비속에 대하여 52.4%가 중하층으로 생각하고 있다. 백수가 마을을 지킨다고 했는데, 잘난 사람들은 마을이 별로 필요가 없다. 우리처럼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하층이하의 사람들이 마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욕구는 굉장히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지역신뢰도 부문에서 2012년도에는 10.7%인데, 2013년에는 8%이다. 타인과의 소통부문에서 내가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80.6%가 이웃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 이웃과의 관계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전의 자원봉사가 대전이 참여비율이 높다. 42.2%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만, 32.3%가 사회발전을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12.9% 로 근본적인 지역사회의 변화에 자원봉사가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한 기반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 중, 지원체계가 비흡하다라고 나왔는데, 예산 집행의 어려움, 지원의 안정성,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과정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평가지표도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지표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마을활동가를 육성해야 된다, 마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여기에 있는데 구별 지원센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하고 생각한다. 마을 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의 언니들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의 공동체 주체들이 각자 활동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들을 잘 엮어서 마을 공동체 활동, 커뮤니티맵핑 작업을 의회에서 추진해보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사회적자본연구센터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방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개성을 도모하는 의미는 있다. 다만 여전히 자율성이나 주민의 자율적이 역량들,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해결해야 하는 미션들이 각각의 고민들을 주민들이 학습하고 해결하는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중앙주도적인 정책이 관행적으로 획일회되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대전시의 고민은 지원은 하되,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마을단위의 특성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것의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이 성과가 아닌 아카이빙방식으로 성과를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어떤 점을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왔다. 아까 조례를 이야기 했지만, 마을 공동체 지원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위법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대전시가 조례로 마련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사회적자본 확충지원조례에 항목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조례 등으로 실질적으로 마련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중간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실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에서 진짜 공동체적인 사례들이 발굴되다 보니. 중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교육, 학습프로그램, 사업설명, 매뉴얼 보급, 네트워크 연계 등의 수많은 일들이 있다. 예산을 보면 과도하게 사업비와 사업지원을 위한 활동비와의 차이가 많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의 네트워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대전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운영비를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을 활동가, 중간 역할자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대전에는 멘토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 분들에 대한 활동보상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명칭을 촉발자. 퍼실리테이터 그룹을 만들거나 양성해야 한다.

각종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혼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되,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역량강화부문은 대전시 배달강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장기플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같은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마을 단위의 장기계획도 스스로가 계획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

▌ ○○○/서울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원칙을 다시 확인받고 가는 느낌이다.

공공성 이야기를 했는데, '끼리끼리를 넘어서자' 라는 부분이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서도(대전시) 고민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조건으로 경제화가 필요하다. 동네에서 역할이 커지면 힘들어진다. 선의를 했는데, 나중에 책임까지 묻는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성이 필요하다. 월급을 주는 형편은 안 되지만, 책임감을 주는 의미, 의식하지 않고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갈 수가 없다.

다양한 장르의 협업이 필요하다. 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면 돈의 단위가 달라진다. 수다비 30만원이 마을을 흥이 나게 하고 참여를 이끌어 마을 사업이 되지만, 마을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이 없으면 나중에 싸움난다. 우리끼리 협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관거번넌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민민거버넌스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 마을은 다 모이는 곳, 고이는 곳이다. 협업하는 것에 노력하고 성과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 ○○○/일반 참석자

청년의 입장에서 마을만들기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확인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활동의 성과나 기적이 청년들에게도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적성, 흥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발견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 저 또한 이 실례로 꿈이 바뀐 사람이다.

유창복 센터장이 다양한 계층이 마을로 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 청년들이 마을로 오는 명확한 계층으로 인식해서 청년에 대한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청년들의 경험이 미래의 공동체 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이 오지 못 한 것은, 청년들은 외국인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지원센터가 청년들에게 좀 더 손을 내미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청년들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이 단순 일자리 제공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마을에 어린이도서관은 있지만, 청년들의 공간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방치되고 있다.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청년일자리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파해서 단순 양적 일자리 증가가 아닌 커뮤니티활동을 통한 일자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청년에 대한 인식이 중간지원센터 내에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청년들과 공감하면서 일하려 한다. 지역에 청년에 없다. 청년들은 자신을 상품화하여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또한 이런 청년들에게 마을의 개념이 약하다. 마을을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다. 마을을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의 개념을 어떻게 공동체 커뮤니티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마을 속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일하려고 한다.

▌ ○○○/일반 참석자

사회복지관의 기능 중에 지역조직화의 기능이 있다. 사회복지관의 존재에 있어서 뗄 수 없는 마을 복지관의 사업들을 20여 년간 해온 곳이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다.

제안하고 싶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눈을 돌려보면 복지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희도 수밋돌어린이도서관이라는 지역조직과 함께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행정이나 예산의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교육을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일상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중에 네트워크 형성지원, 다목적 공간 지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의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제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 정책적 대안, 또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지원들을 통해서 성장한 지역조직들이 예산이 빠졌을 때, 담당자가 사라짐으로서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

이런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회복지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선례를 살펴보고, 본인들의 전략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결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분도 한 축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자원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 ○○○/일반 참석자

아파트 안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다보면, 정말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 아파트 안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부녀회나 동대표들이다. 정말 평범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때 권력을 가진 분(부녀회, 동대표)들의 이해도가 낮을 때는 (아파트 내 안내)방송 하번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규약에 공동체 활성화 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어서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동대표가 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동대표나 부녀회가 추진하면 정말 커지고 잘 되겠다는 하는 사업을 경험하면서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록(4) :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분석 내용 정리

<표. 10>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외적 평가

구분	모임 형태	사업 유형	진행상 어려운점	멘토 활동	센터활동	대전시정책제안
2013-A-2	주민	생활 갈등 조정	-아나바다 장터 참가자 모집 -회계처리 관해서는 어려움 없음	-정보 취득 차원에서 도움	-센터 활동 전반에 관해 잘 모름	-주민 간의 소통을 넓힐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지원필요
2013-B-11	주민	교육	-주민들로부터 모임의 공식성을 인정받은 것 -회계처리에서 사업비, 인건비 등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회계정리도 처음에도는 쉽지 않았음	-활동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미흡. 좋은 마을만들기 활동 경험자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	-만족 -인원 충원 필요함 -공동체 내부 갈등조정을 상담할 수 있는 상근 멘토 필요	-일자리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일정의 새로운 성과나 양적 성장이 아니라 모임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2013-B-43	주민	문화 역사	-활동비 책정 필요 -지속적인 재정 확보	-마을축제 관련 좀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멘토지원 필요	-대체로 만족 -문화집단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 필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 보고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 -음향 등 장비 임대지원

2013-B-131	주민	환경생태	-학교장과 관계: 교육청의 지시사항이 아닌 경우 꺼려함 -참여자 조직: 학부모들의 관심이 자녀들의 공부외의 급식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음 -사업 중간에 사업내용이나 형태를 바꾸기 어려움 -활동비 사용이 까다롭고 금액이 적음	-자체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조언의 수준	-센터의 활동전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음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보다 좋은 모임만들기 사업을 통해 모임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 필요
2013-B-65	비영리	환경생태	- 회계업무가 힘듦	- 좋았음 -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조언. - 멘토보다 다른 단체 활동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많이 받음(강사)	- 사업분류가 헷갈림(교육형이 아닌 환경생태형임) - 실무활동가가 혼자라 많이 참여를 못해 아쉬움 - 사업분류가 헷갈림(교육형이 아닌 환경생태형임)	- 눈에 보이는 행정지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

2013-C-117	주민	교육	-예산 집행이 어려움 -예산항목간의 변경이 안됨(인건비)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쉬움(실무관련) -1차, 2차 지원활동의 차별화(년차에 맞는 멘토활동이 필요함)	- 공동체간의 교류와 정보공유가 필요함 - 인건비성 예산편성이 필요	-공동체활동에 대한 홍보(우리 동네 이런 공동체모임이 있어요~)
2013-C-46	주민	마을미디어	-사업의 특성 상 기자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글쓰기에 대한 부담 -운영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신문 발행비 확보의 어려움 -사업 초기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사업비에서 활동비, 강사비, 장비구입 등 현실과 맞는 책정이 아쉬움	-멘토들이 본인들의 본업도 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요구를 하기 어려움 -만남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음 -인원 충원 필요	-장비 임대 등 공동사용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점검보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함께 고민하는 의지 -마을 안에서 사람들 연계,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 혹은 마을 간사에 대한 지원 -더 많은 주민들이 편하기 모일 수 있는 공간 마련
2014-A-77	주민	환경생태	- 지출거래양식이 불편함 - 활동공간이 없음: 직장인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야간시간장소 제공	- 활동상황에 맞은 적절한 멘토였음	- 주요 행사 등이 낮시간대여서 직장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임	- 직장인들을 위한 사업 진행 (참여시간대, 장소 등)

2014-A-140	주민	교육	-구성원의 특성상 전체가 모두 모이는 회의를 하기 어려움. 인터넷 카페 등 보조수단 활용	※인터뷰 당시까지 멘토 상담 미실시	-만족 -인원 충원 필요	-마을의 범위를 작은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넓게 바라봐 주길 바람
2014-A-78	비영리	복지	- 지역에서 장애인관련 사업진행의 한계	- 도움을 많이 받았음 - 도시 공간, 디자인 등 관련 지식습득	- 모임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를 못해 아쉬움	-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 지원 확대
2014-B-98	주민	문화복지	- 예산집행의 융통성이 부족(재산취득 불가) - 카드사용의 불편함(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지출이 있음, 영수증 처리 등)	- 사업지원에서 프로그램 설계에 까지 도움을 많이 받음	-예산의 효율적 집행(탄력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 센터실무자 업무가 너무 많음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원 -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2014-B-116	주민	마을미디어	- 예산항목과 비율이 제한되어 있음. - 회계처리가 어려움 - 자유로운 공동체 활동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움. -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보장이 없음	- 실제 현장경험자의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되었음(맞춤형 교육)	- 예산 확보가 더 되었으면 -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 - 증빙서류를 간단하게 해줬으면 함	- 지속적인 지원 - 공동체 활동이 홍보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음

<표. 11>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적평가

구분	모임형태	사업유형	활동의 효과	전망
2013-A-2	주민	생활갈등 조정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재정 지원의 효과가 있음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간 소통에 기여함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2013-B-11	주민	교육	-기존의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의 역할이 컸음 -활동력의 공신력을 확보함 -아파트의 운영에 관한 관여 지점을 찾는다든가 아파트 단지 내부 문제의 해결에도 일정 정도 기여함 -모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부녀회 결성의 효과	-기존 모임을 기반으로 마을 도서관 사업이나 다른 사업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 등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 중
2013-B-43	주민	문화역사	-기존의 활동에 재정지원의 효과가 있음 -활동의 공신력을 확보함	-마을의 활력을 확보하고 참가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려 함
2013-B-131	주민	환경생태	-기존의 모임을 진행하는데 재정적 효과 있음 -활동의 공신력을 확보함	-사업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
2013-B-65	비영리	환경생태	- 도솔산 생태탐사	- 지역의 엄마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 - 노인정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민

2013-C-117	주민	교육	-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아졌음 - 지역주민, 구청, 주민센터, 초등학교의 관심이 커짐 - 아빠들의 참여가 확대 - 구성원들의 관계가 좋아짐	- 놀이의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지역학교 및 복지관 등과의 교류 확대 - 구성원들의 전문성강화
2013-C-46	주민	마을미디어	-기존의 모임을 이어가는데 재정적 효과 있음 -재정의 자립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마을 내 후원회 조직, 주민들의 자발적 후원금 지원 등 주민들의 관심이 확대됨 -세대 간 소통의 확대, 공동체에 대한 관심, 마을 내 노년 세대의 활동 공간 제공, 아이들의 공동 육아 공간 확보, 마을 내 계층 간 소통 등 효과 -마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공간 제공의 효과	-완전한 재정 자립 -마을 내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내용의 다양화 계획
2014-A-77	주민	환경생태	-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관심이 생김 -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됨	-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2차 지원 계획
2014-A-140	주민	교육	-모임을 구성하는데 지원의 역할이 컸음 -활동 시작단계로 외부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으나 참여자들의 자기계발 차원의 효과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게 됨	-장기적으로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고민 있음

2014-A-78	비영리	복지	- 사업참여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변화(장애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진사람들끼리 의식차이가 있음)	- 올해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된 방향의 사업으로 2차 지원계획
2014-B-98	주민	문화역사	-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확장되고, 좋아짐(아파트주민,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활동지원) - 지역활동과 구성원활동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됨(“우리가 왜 이걸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둘러보면서...때로는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 역사길, 생태탐방 프로그램 확대 - 마을공동체 활동 확대
2014-B-116	주민	마을미디어	- ‘보슈’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자긍심이 생겼다.) -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고민하게 됨(구성원)	- 보슈 미디어를 만들려고 함 - 마을미디어 협의회를 만들려고 함(유사 활동단체와 함께)

대전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실태조사

발 행 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

발 행 일 2014년 11월 30일

발 행 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3층

(301-803)

전화 042-334-1253 팩스 042-334-1254

홈페이지 http://socialcapital.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